

선을 넘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 성경통독을 통한 교회 정체성 회복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김승현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4년 5월

Copyright © 2024 Seung Hyeon Kim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CROSSOVERING DIASPORIC KOREAN CHURCH : RECOVERING CHURCH IDENTITY THROUGH TONGDOK

Seung Hyeon Kim

New York, USA

This study identifies the situation in which immigrant Korean churches and believers are suffering from borderline conflict, division, wounds, and identity confusion. The diaspora situation has also led to a crisis situation, and this thesis recognizes the situation in which overseas Korean churches and believers, as a diaspora, are suffering. It began with concerns about how the Korean church could overcome this crisis and fulfill its mission as a pioneer of the Kingdom of God.

This thesis presents Scripture reading as a way to overcome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boundaries experienced within the diaspora situation. This thesis also looked at the current situation and reality of the Korean immigrant church as a diaspora and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ble as the Word of God and the Kingdom of God as the goal pursued in the reality of living as Christians on this earth. In addition, as a specific method of reading the Bible, this study considered the need for reading the Bible in a horizon-integrating and consilient way as a method of reading the Bible to overcome the boundaries regarding method and perspective.

Not only can boundaries be overcome through “reading the whole Bible,” but it has also been confirmed that the eternal and infinite kingdom of God, in which there are essentially no boundaries, is the destination that believers today should pursue through reading the Bible.

Members of overseas Korean immigrant churches live their lives of faith in the hope of comfort, help that overcome the boundaries of their fearful, and difficult reality. However, what God requires of us is a faith that goes beyond these realistic boundaries. When we show God a faith that goes beyond reality, God will give us grace, help, and miracles that go beyond reality.

However, the faith that goes beyond this reality is not in my story or our story, but in the Bible story as the original story, the story that God gives us.

국문초록

선을 넘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 성경특독을 통한 정체성 회복

김승현

뉴욕, 미국

이 연구는 본인이 소속한 뉴욕초대교회를 비롯한 해외 한인교회들과 성도들이 디아스포라적인 상황에서 경계선적 갈등과 분열, 상처와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디아스포라로서의 해외 한인교회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취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이 되었다.

디아스포라적 상황과 지평 내에서 경험하는 경계선과 경계선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의 성경읽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역사 속의 디아스포라를 살펴보고 디아스포라 정체성으로서 성경읽기가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디아스포라로서의 한인이민교회의 상황과 현실을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추구하는 목적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성경읽기의 방법으로서 성경을 읽는 방법과 관점에 대하여

경계선을 극복하기 위한 성경통독의 방법으로서 지평융합적이고 통섭적인 방법으로서의 성경읽기가 필요함을 고찰하고 이를 위해 뉴욕초대교회에서 조병호가 제시한 “통 성경읽기”를 다른 성경공부 혹은 성경읽기를 실천하여 비교분석하였고 현재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통 성경 읽기”를 통해 경계선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어떠한 경계선도 존재하지 않는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읽기를 통해 추구해야 할 목적지임을 확인하였다.

미국 뉴욕초대교회를 비롯한 해외 한인이민교회의 성도들은 위축되고 두렵고 고단한 현실의 경계선을 뛰어넘는 위로와 도움, 심지어 기적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현실적 경계선을 뛰어넘는 믿음이다.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현실을 뛰어넘는 은혜와 도움, 기적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은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스토리로서의 성경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 안에 있다.

목차

감사의 글	xi
표 목차	ix
그림 목차	x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연구방법과 범위	8
II. 디아스포라와 교회	11
역사 속의 디아스포라	11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으로서의 성경읽기	28
오늘날 디아스포라로서의 한인이민교회의 상황	38
III. 하나님 나라 One Story로서의 성경통독	51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	51
“지평융합” 과 “통섭” 으로서의 “통” 성경읽기	61
선이 없는 하나님 나라	68
IV. 뉴욕초대교회 성경읽기의 적용	75
뉴욕초대교회 “통” 성경읽기	75
설문조사	81
평가	88
V. 결론	92
선을 넘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92

제언	94
참고문헌	100

표 목차

<표 1> 뉴욕초대교회 통성경길라잡이 1기 연령분포	79
<표 2> 뉴욕초대교회 통성경길라잡이 2023년 1학기 기말정리.....	82
<표 3> 뉴욕초대교회 통성경길라잡이 설문조사	84

그림 목차

<그림 1>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주변국 반응	3
<그림 2> 2020-2021 년에 미국 아시아 태평양계 대상 혐오 사건	4
<그림 3> 세계 이민자 현황	25
<그림 4> 9·11 테러 이후 후유증의 종류	47
<그림 5> 마더와이즈란?	76
<그림 6> 인물별 성경 공부 목차	77
<그림 7> 일년일독 성경통독표	79

감사의 글

2024. 5

김승현

먼저 이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논문을 지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격려해주신 조병호 교수님과 김영래 교수님,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자를 끝까지 지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사람을 담임목사로 잘 도와주시고 많은 허물을 용납하고 참아주시는 뉴욕초대교회 당회원들과 언제나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시는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떠난지 4년이 넘었지만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님과 김하나 담임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지금도 노심초사하시며 기도해주시는 부모님과 자주 연락드리지 못하고 미국 온 후 찾아뵙지도 못하는 부족한 사위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장인어른, 장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남편을 위해서 혼자서 많은 것을 감당하는 아내에게 늘 감사하고 항상 미안함만 가득한 두 자녀 윤원이, 규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 I 장

서 론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세계는 전쟁 팬데믹이 진행 중이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이스라엘의 대규모 보복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가 초토화 되고 곧 바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었다. 그러나 주변 나라들의 참전으로 예멘의 후티 반군과 미국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한편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직접 참전은 아니라도 우크라이나에 물자와 군수품을 지원하면서 복잡한 국제전이 되었다.¹

이 두 전쟁의 뿌리는 이미 수천년동안 이어져 온 것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성경시대부터 종교적, 정치적 갈등과 반목의 결과물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최소 수 십년 이상의 직접적인 정치적 갈등과 전쟁이 반복되는 상황이고, 그 뿌리는 이미 수백년 전부터 이어 온 민족적 정체성의 갈등이다.²

¹ 이스라엘에 공격을 시작한 하마스에 대해서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연합은 하마스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었고 이란을 필두로 중동, 아랍 국가들은 하마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https://www.voakorea.com/a/7300828.html>

²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한 민족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지역의 친 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영토내에서 새로운 친러시아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942>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 모두 같은 지역적, 인종적 뿌리를 가진 나라, 민족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지역적 인종적 뿌리를 가져 서로 돕고 품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반대편에 존재하는 이들을 증오했고 죽이고 없애려고 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땅에 그어진 경계선의 문제이다.³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경우 1948년 이스라엘 건국 후 유엔과 연합국이 그어 놓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경계선으로 인해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국경을 넓히려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을 이어온 것이다.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경우도 과거 소비에트 연방 시절의 영토를 러시아가 되찾고자 끊임없이 갈등해 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살던 러시아인들과 우크라이나인들은 서로의 영역과 경계선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

표면적으로는 영토의 문제를 표방한 전쟁들이 계속 당사국들 간의 전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 나아가서 세계의 갈등과 개입으로 번지고 있다. 그리고 점점 더 다른 지역의 전쟁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⁵

³ 전쟁은 생존을 위한 터전과 권리의 문제라는 것이 직접적이고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이유들이다.
<https://news.koreadaily.com/2023/10/16/life/religion/20231016194459022.html>

⁴ 팀 마샬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동거에서 오는 마찰이 이따금 재현되고는 있지만 아랍의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본 일부 관측자들은 이 지역의 문제가 단지 이스라엘이 있음으로 해서 발생한 문제로만 환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랍의 독재자들은 자신들의 극악무도함에 대한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고 이스라엘을 원흉으로 지목하는 거짓말을 퍼뜨린다. 그리고 그 지역의 많은 이들과 독재자들에게 쓸모 있는 서구의 바보들은 이 말을 그대로 옮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이 연계된 비극은 현재진행형이다.”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경계의 문제가 단지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민의 문제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팀 마샬, 『지리의 힘』 김미선 역 (서울: 사이, 2022), 280.

⁵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영향으로 중국과 대만의 전쟁 위험이 높아진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97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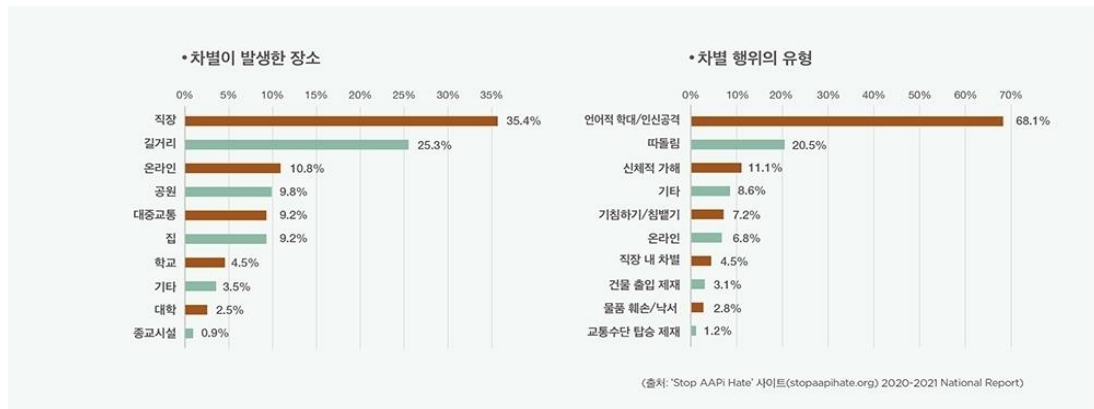
<그림 1>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주변국 반응(자료출처: 연합뉴스)



이 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 속에서 전쟁은 마치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처럼 완전히 종결도 되지 않고 계속 변종 바이러스를 생산하면서 퍼져 나가고, 세상과 인류의 평화와 안녕을 계속 파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사적인 충돌이 아니라도 인종간의 갈등은 전쟁과 같은 상황을 불러오고 있다. 단편적인 예로 미국은 코로나가 중국에서 비롯되었다는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수많은 아시아인들이 인종혐오에 시달렸고 인종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인종차별이 심각한 사회적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⁶

<그림 2> 2020-2021년에 미국 내에서 발생한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대상 혐오 사건의 발생 장소와 형태(자료출처: ‘Stop AAPi Hate’)



민족적이고 지역적인 동질성 때문에 전쟁하고, 인종적이고 종교적인 타자성으로 인해 전쟁하는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다. 전쟁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경계선, 자신의 영역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전쟁임을 모두가 주장하고 있지만 그 경계선이 계속 전쟁을 불러오고 있다.

경계선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민족적, 인종적, 지리적인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존재하는 정체성과 신념, 가치관의 문제다.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사고방식과 태도의 경계선이 민족적, 인종적, 지리적 경계선과 전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희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⁶ 미국의 호콜 뉴욕주지사는 중오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중오범죄가 뉴욕에서 이미 전쟁과 같은 심각한 위협임을 드러내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126/1499443>

우리는 타인에게 매료되고, 함께 살아가고, 헌신하는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 살아가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그 대상과 통합하며 나아가는 경험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아의 경계는 자신을 건강하게 존중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자아의 경계를 의미하는 용어를 ‘에고 바운더리(Ego boundaries)’ 라고 하는데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용어로 자아와 비자아를 구별하는 개념에서 1980년대부터 사용되어 왔다. 불친절하고 무례한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사생활, 존엄성, 품위 등을 침해 받을 때, 적절한 경계를 두고 그들의 행동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을 의미하기도 하지요⁷

내면적인 경계선은 자아중심적인 인식과 개념이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를 지키기 위해 비자아를 구별하고 분리하여 자아를 중심으로 경계선을 긋는 것이다. 자아의 경계선 밖에 또 다른 자아가 존재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비자아로서 인식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내면적인 경계선의 특징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계선을 지키기 위한 세상, 경계선이 최후의 마지노선이 되는 세상, 경계선에 의해 보호받는다 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경계선으로 말미암아 분쟁과 갈등이 전쟁을 촉발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 또한 이러한 “경계선주의” 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의해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파송되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세계, 다른 민족을 지향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다른 세계, 다른 민족을 지향하며 파송 받은 교회는 결국 다른 세계, 다른 민족, 다른 문화, 다른 종교와의 경계선을 가지고, 그 경계선의 갈등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시작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단순히 경계선의 상황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 그 경계선의 상황을

⁷ 정희주, 『정신의학신문』 <https://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4993>

극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명령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을 향한 선교명령은 경계선을 극복하는 복음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시작부터 경계선의 갈등을 마주하는 상황에서 출발한다.

또한 한편으로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수많은 분파로 나뉘어 있고 심지어 경쟁하고 갈등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의 현실이다. 이러한 분쟁과 갈등, 분열은 신앙의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방식과 해석의 문제이다. 신앙의 방식과 해석에 대해서 각자 나름의 경계선을 긋고 그 경계선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신앙의 방식과 해석 뿐만이 아니라 각 지교회 내에서도 수많은 경계선들이 분쟁과 갈등을 불러온다. 세대 간에, 또한 성별 간에, 직분 간에, 개인 간에 한 신앙, 한 교회, 한 고백 안에서도 경계선들은 치료되지 않는 염증들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스스로 어둠을 생산해 내고 안으로부터 어둠에 잡아 먹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계선주의” 세상 속에서 경계선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가 분쟁과 분열, 전쟁을 불러오는 경계선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향해 평화를 전할 수 없다. 분쟁과 갈등을 촉발시키고, 전쟁 팬데믹을 불러오는 경계선주의의 세상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경계선주의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경계선주의에 대한 백신이 되고 치료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교회의 탄생부터 내재된 사명이다.⁸

⁸ 노영상은 “복음전도의 일과 사회적 정의를 위한 일은 애초부터 나누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참다운 영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관심에 대해 열려있다. 사회적 문제를 관심에 두고 고심하는 자에 대한 진정한 대답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말하며 성도로서의 교회, 교회로서의 성도의 사명이 사회적 관심과 책임에 대해서 열려 있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노영상, “교회와 사회의

교회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전쟁 팬데믹을 유발하는 경계선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은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낸 텍스트가 바로 성경이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성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나는 성경을 신성한 텍스트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하나님의 자기계시의 처소로, 하나님이 오늘날의 모든 인류와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로 사용하는 과거의 텍스트로, 전체적인 통일성을 갖고 있되 내적으로는 풍성하고 다양성 가득한 텍스트로 읽는다. 또 의미들을 기호화하고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굴절시키는 텍스트로, 수용적 태도로 또 상상력을 동원해 관여할 뿐 아니라 신뢰와 비판적 판단과 함께 접근해야 할 텍스트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규정짓되 기독교 공동체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하는 텍스트로 읽는다.⁹

경계선의 오용과 남용으로 인해 교회도 병들고 세상도 병들고 있다. 증오와 미움의 만성염증이 자신과 남을 모두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전쟁 팬데믹까지 번져서 대량살상무기의 원료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본문에서는 전쟁 팬데믹을 극복하는 길을 찾는 주체로서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성경읽기를 제시하고자 한다.

거룩하고 신성한 텍스트로서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길을 회복하고 다시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조병호는 “성경통독의 목적은, 기뻐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관계성에 대한 유형 연구”, 『교회와 사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신학위원회 편 (서울: 성광문화사, 2002), 73.

⁹ 미로슬라브 볼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홍병룡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52.

느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에 있다.”¹⁰ 고 말하였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쟁 팬데믹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의 평화¹¹를 누리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임을 밝힌다.

연구방법과 범위

오늘날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공동체의 현실과 상황을 기초로 연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가다머는 해석자 혹은 연구자의 한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어느 시대에든 유한한 현재의 관점은 상황의 제약을 받는다. 상황이라는 개념은 관찰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관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상황 개념은 그 본질상 지평개념을 내포한다. 지평이라는 것은 어떤 지점에서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가시권을 가리킨다. 이것을 사고하는 의식에 적용하면 시야가 좁다거나 시야를 확장할 수 있다거나 새로운 시야를 연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한다.¹²

본 연구자도 지평의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연구자의 지평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자의 지평을 제약하는 상황은 미국 뉴욕의 한인교회이다. 한인이민교회는 과거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상황처럼 고향을 떠나

¹⁰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16), 60.

¹¹ ‘평화’는 히브리어로는 ‘shalom’ (shalom)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eirene)이다. 그 뜻은 완전함, 하나됨, 조화, 그리고 번영, 건강함, 충만함이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형성된 내적인 조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까지 미친 상태를 말한다. 이 단어는 대체로 두 가지의 서로 구별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평화, 호의, 우애’로, 전쟁이나 적대관계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쓰이며, 다른 하나는 ‘행복, 번영, 복’으로 여기서는 구체적인 물질적 선에 매우 강한 강조를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어떤 의미이든, ‘완전함’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고 있다. 『간추린 비전 성경사전』 하용조 편, (서울: 두란노, 2004), 618.

¹²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 『진리와 방법2』 임홍배 역 (파주: 문학동네, 2012), 187.

새로운 환경에서 정착하면서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으로 이민살이를 견디어 내는 경험을 하였다. 그리고 과거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의 현실에서 오랜 세월동안 정체성을 지키고 오히려 수많은 고난을 극복해 낸 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공유하였고 또한 세대를 이어가며 그 신앙적 정체성을 공유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 신앙적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었던 핵심이 바로 성경읽기였다. 그래서 미국 뉴욕의 한인교회 담임목사로서 미국 뉴욕의 한인교회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의 디아스포라적 상황과 지평 내에서 경험하는 경계선과 경계선의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성경읽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어지는 본론에서 역사 속의 디아스포라를 살펴보고 디아스포라 정체성으로서 성경읽기가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현재 디아스포라로서의 한인이민교회의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추구하는 목적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성경읽기의 방법으로서 성경을 읽는 방법과 관점에 대하여 경계선을 극복하기 위한 성경통독의 방법으로서 지평융합적이고 통섭적인 방법으로서의 성경읽기가 필요함을 고찰하고 이를 위해 조병호가 제시한 “통 성경읽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통 성경 읽기를 통해 경계선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어떠한 경계선도 존재하지 않는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읽기를 통해 추구해야 할 목적지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또한 이미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통 성경 읽기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본론 마지막 부분에서는 뉴욕초대교회에서 실제로 지난 2023년 1월부터

시작한 “통성경 길라잡이” 성경공부와 성경읽기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통 성경 읽기가 실제로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적 정체성, 현실적인 생활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통 성경 읽기가 디아스포라 한인이민교회인 뉴욕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계선의 충돌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전쟁팬데믹 상황 속에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 II 장

디아스포라와 교회

역사 속의 디아스포라

보스턴 칼리지의 역사학 교수인 케빈 케니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의 기원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추방과 흩어짐에 대해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고 말하였다. 그는 디아스포라¹³라는 단어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어 사용되지 않았으며 20세기에는 아르메니아인이나 아프리카인의 강제이주를 의미하는 단어로 확장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는 모든 종류의 이주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¹⁴ 케빈 케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주, 추방, 망향은 고대 유대 역사 이야기의 주된 특징이다. 성경을 역사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상정하는 역사, 지금도 유대정체성의 중핵을 이루는 역사가 디아스포라 개념의 기초를 이루는 발단이 된다는 사실이 핵심이다. 유대 디아스포라에 관한 설명들은 대개 기원전 586년의 바벨론 유수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구약성경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세기동안 이주를 거듭했다.¹⁵

¹³ 어원적으로 디아스포라는 그리스어 전치사 dia(영어로 ‘over,’ 우리말로 ‘~를 넘어’)와 동사 spero(영어로 ‘to sow’, 우리말로 ‘뿌리다’)에서 유래되었다.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5.

¹⁴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is』 최영석 역 (서울: 도서출판 엘피, 2016), 9.

¹⁵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is』, 11

케빈 케니의 말처럼 디아스포라는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발전한 개념이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상황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은 다분히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며 현실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개념이 유대인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또한 전 세대를 “통” 하여 사용되는 개념으로 확장할 수 있다.

디아스포라는 부정적인 개념의 현실을 담고 있는 단어이다.¹⁶ 원했든지, 원하지 않았던지 이주, 추방, 망향은 근본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정체성과 문화의 차이를 극복해 내고 적응해야만 하는 불편한 현실이 내재되어 있다. 로빈 코헨과 올리비아 셰링엄은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디아스포라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고 다른 집단과 구분된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는 강한 민족 집단의식을 보여 준다. 디아스포라는 공통의 문화 종교적 유산을 내세우며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 이 믿음은 여러 나라에 걸쳐 공유된다. 디아스포라는 고국에서 여러 외국으로 흩어져 거주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 과정은 트라우마로 남기도 한다. 그 밖에, 디아스포라는 일을 찾아 이주하면서 형성된다. 무역을 하거나 식민지에서의 새 삶을 꾸리려는 목적 때문이다.¹⁷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특성은 처음부터 디아스포라였다. 안주할 땅을 가지지 못한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이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인의 땅 우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지만 동시에 고향에서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살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¹⁶ “고대 그리스인들은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은 뒤 그곳으로 자국민을 이주시켜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 때 디아스포라는 이주와 식민지 건설을 의미하는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졌다. 이후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의 유랑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이면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5.

¹⁷ 로빈 코헨, 올리비아 셰링엄, 『다름과 만나기』 최영석 역 (서울: 도서출판 엘피, 2019), 31.

고향에서도 디아스포라처럼 살아가고 있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은 가나안에서 태어났지만 계속 이주하면서 살았고 야곱 또한 이주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 월터 브루그만은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찍이 미지의 땅으로 가고 있는 우거자들(sojourners)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묘사되었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하여는 특별한 말씀이 없으신 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구약성경 창세기 내러티브는 신앙의 길이란 땅을 떠나는 것이며, 땅이 없는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¹⁸

월터 브루그만이 말한 우거자의 특징이 바로 디아스포라의 특징이다. 정해진 땅에서 터를 잡고 살 수 없는 상황을 견뎌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낯선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견뎌내야만 하는 현실이 바로 디아스포라의 현실이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무엇보다 생존이 최우선 목표와 특징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인 것이다.¹⁹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경우 우거하는 인생은 자의에 의해서 결정된 선택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다. 생계와 생존의 위급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주자로 계속 살아갈 수 밖에 없었고 그 과정 속에서 마주하는 경계선을 극복하기 위한 여정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선택으로 가나안 땅으로

¹⁸ 월터 브루그만, 『성경이 말하는 땅』 정진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48-49.

¹⁹ 월터 브루그만, 『성경이 말하는 땅』, 50.

이주하였지만 이미 그곳은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 갈대아인의 땅에서 가나안인의 땅으로 이주하며 소속감이나, 권리, 소유권, 발언권 등이 제한된 “우거” 생활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근에 의한 생계, 생존의 위협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없이 가족과 함께 남쪽으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애굽에서도 잠시 머물기 위해서 애굽인을 경계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애굽인과의 경계선에서 오는 갈등을 극복하려고 시도했다.

디아스포라이며, 우거자인 아브라함의 인생은 언제라도 빼앗기고 살해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의 경계선을 안고 살아가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었다.

폴 존슨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히브리 민족의 기원은 히브리어를 기반으로 하는 하피루 또는 하비루라는 그룹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비루라는 말은 도시에 머물지 못하고 떠돌아 다니는,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다분한 난폭한 무리를 지칭하는 욕설에 가까운 단어이다. 때로 그들은 용병, 노예, 노동자, 행상 등을 진진하기도 했고 그 중에 많은 부를 축적하거나 작은 왕국을 세우기도 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이민자 그룹, 하비루의 한 그룹이었다. 그는 한 부족의 족장이었고, 집에서 318명의 사병을 기르고 애굽의 왕과도 관계를 맺고 용병으로 소돔 왕을 위해서 움직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하비루 그룹은 성장과 활동의 경계선이 있는데 짐승을 기를 땅은 제한되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물도 제한되어 있었다. 하비루 그룹이 부를 쌓으면 내외부적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부유함이 다음 세대의 조카 롯과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결국은 헤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것은 훗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마주치는 경계선, 한계와 같은 맥락인 것이다.²⁰

디아스포라는 기본적으로 남과 나를 다르게 보는 관점을 가지게 되고 나와 남을 구별하며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게 될 수 밖에 없다.²¹ 구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 남과 그들과 갈등하고 투쟁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투쟁과 갈등은 결국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되고 관점과 사고방식, 가치관의 왜곡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의적으로 일을 찾아 이주하는 상황도 결국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거나 희망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불가피한 상황에 내몰려서 이주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이고, 불편하고, 투쟁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강한 경계선을 형성할 수 밖에 없다.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생존을 위한 본능이라고 볼 수 있다.

디아스포라는 불편한 현실 속에서 경계하며 경계선을 긋고 자신을 지키려 한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경계선에 의해 형성된 관점과 사고방식의 프레임²²에 갇히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밖에 없다. 경계선들이 프레임이 되고 프레임이 결국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도 있지만 감옥이 될 수 있고

²⁰ 폴 존슨, 『유대인의 역사』 김한성 역 (서울: 포이에마, 2023), 33-34.

²¹ 폴 존슨은 아브라함의 이주 이유에 대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한 셈족의 이주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주 동기는 신앙이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브라함은 위대하고 전능하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이다. 비록 마음속에 유일신 개념이 완전하게 자리 잡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유일신 신앙을 얻기 위해 애썼으며 메소포타미아 사회가 영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그곳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하며 아브라함의 신앙과 가치관이 당시 주변의 종교나 가치관과 확연히 구별되는 경계선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신앙과 가치관을 고수하고 지키기 위해 애썼음을 말하고 있다. 폴 존슨, 『유대인의 역사』, 38.

²²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최인철은 “프레임은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향한 마인드셋(mindset), 세상에 대한 은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모두 프레임의 범주에 포함되는 말이다.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도 한다.” 라고 말한다. 최인철, 『프레임』 (파주: 21세기북스, 2017), 23-24.

나아가서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역사가 우거자, 나그네, 이주민, 디아스포라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이주민으로 지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이주기간을 지냈지만 본격적으로 디아스포라로 구별되는 시기는 바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기원전 586년부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서기 70년경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135년경 마지막 항전이 진압된 이후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유대인들은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간 것이다.²³ 그리고 역사상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고난과 추방과 학살의 비극을 당해왔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는 단순히 이주하고 추방되는 개념을 넘어서서 흩어져 살아가는 현실 속의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개념이 더 강한 것이다.

유대인의 역사에서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경험하게 된 영적인 슬픔과 멸망의 상태로 이해된다. 성경에서 흩어짐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난다. 개역개정 성경 신명기 28장 25절에서 “여호와가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단순히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넘어서서 영적인 의미를 담지하고 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신학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죄의 처벌이면서 동시에 회개를 통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인 것이다. 그래서 이 개념을 다른 상황이나 다른 대상에 적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²³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is』, 11-14.

자칫하면 지나친 단순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아스포라의 적용에 대해서 유대적인 개념의 경계선에 갇힐 필요는 없다.²⁴

역사 속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의 디아스포라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만큼이나 주목받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통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대제국들의 침략을 받아왔다. 그래서 때로는 강제로, 때로는 스스로 나라를 떠나서 흩어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5세기부터 아르메니아 인들은 발칸 반도를 비롯해서 동로마 제국, 유럽, 팔레스타인과 아프리카, 페르시아 지역에 아르메니아 인들의 도시와 정착지가 퍼져 나갔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미국에도 아르메니아 이주민들이 진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아르메니아인들의 디아스포라의 특징은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이주하였고 오랜 세월 독립국가를 세우지 못했고 수백년간 돌아갈 고국이 없었다는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서서 박해를 받으며 수십만명에서 백 수십만명이 대량학살을 당하기도 했으며 수만 명의 난민이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인종청소를 당했던 것이다.²⁵

역사 속에서 유대인과 아르메니아인들의 디아스포라만큼 주목받는 디아스포라는 바로 아프리카인들의 디아스포라이다. 아프리카인들의 디아스포라는 노예제도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노예무역으로 인해 아프리카인들이 경험해야 했던 비극은 전무후무한 것이다. 16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1100만여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노예로 사로잡혀 강제로 대서양을 건너게 된다. 이렇게 촉발된 아프리카인들의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와 많은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학대와 노예살이의 패러다임에서 아프리카인들은 노예살이 하던 히브리인들로, 이집트는 미국으로, 파라오는 노예를 부리는 소유주들로 차용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²⁴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is』, 14-17.

²⁵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is』, 18-21.

것이다.²⁶

이렇게 역사 속에서의 디아스포라는 단순히 이주나 흩어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박해를 동반한 비자발적인 이주일 뿐만 아니라 인종청소를 당할 정도의 멸시와 위협을 당하는 역사였다.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상황과 현실 속에서 스스로 경계선을 형성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타의에 의해서 경계선 안에 갇히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자의적인 경계선과 타의적인 경계선이 맞물리며 형성된 프레임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디아스포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가롯 유다와 병사들에 의해 잡힐 때에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수가 잡히시던 밤에 예수와 3년을 동고동락하며 예수의 모든 말씀들, 모든 사역들, 모든 기적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예수가 잡힐 때에 다 도망간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 26:56) 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흩어질 것 또한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안에 있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께서 흩어진 제자들을 친히 다시 찾아오시고, 공식적으로 흩어질 것을 예언하고 명령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9-20)라고 말하고 승천하기 직전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²⁶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is』, 21-22.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라고 말하며 흩어지는 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의해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스테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이들로 인해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되고 그 중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스테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스테반 집사를 돌로 치는 현장에서 스테반 집사가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던 사울이 있었다.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바울이 되었고, 그 바울을 받아들이고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다.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곳에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²⁷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발생한 대화재 사건의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다. 당시 네로는 대화재의 원인이 황제인 자신과 연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고문과 핍박과 박해를 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미신으로 취급하고 로마의 통독에 의해 고난을 당한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현상은 유대인에 대한 혐오감도 한 몫을 담당하였다. 타키투스는 당시 그리스도인에 대한 잔혹한 폭력에 대해서 짐승 가죽에 덮힌 채 개들에게 찢겨 죽고, 십자가에 못박히고, 화형되었고 네로는 그것을 축제처럼 즐겼다고 한다.²⁸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 흩어진 곳마다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고 심지어 동족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공격을 당하고 박해를 받게 되었다.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²⁷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서울: 통독원, 2020), 509.

²⁸ 에버렛 퍼거슨, 『초대 교회 배경사 제3판』, 엄성옥, 박경범 공역 (서울: 은성출판사, 2005), 698.

바울의 디아스포라 선교 사역의 가장 큰 방해자들 중의 하나가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다.²⁹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도 유대인도 아닌 별개의 인종으로 취급하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소속되지 못하고, 어떠한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고 그들은 몸과 마음이 언제나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지낼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늘에 소속된 시민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조국에서 살아가더라도 우거민으로,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조국이 외국이 되고 어떤 나라도 조국이 될 수 있었다.³⁰

역사 속의 디아스포라는 살피본 바와 같이 자신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강요된 선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는 기본적으로 타의에 의한 이주였다. 암묵적인 폭력에 의해 강요된 이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디아스포라는 어디에서나 타의에 의해 경계선이 둘러지게 되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경계선을 지키기도 하고 경계선을 넘기도 한다. 그리고 심지어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안에 경계선을 생성하여 스스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마치 경계선이 자신들의 정체성인 것처럼 경계선에 고통 받으면서 또한 경계선을 만들어 내는 존재가 되어갔다. 경계선을 지키는 것도 경계선을 넘는 것도 디아스포라에게는 고난이고 고통이다. 그래서 경계선 자체가 디아스포라에게는 가시면류관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역사 속에 나타난 고난 당하는 디아스포라, 가시면류관과 같은 경계선에 갇힌 디아스포라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²⁹ 조병호, 『성경과 5대 제국』 (서울: 통독원, 2020), 344.

³⁰ 롤란드 베인턴, 『세계교회사』 이길상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0), 67.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경계선주의에 빠진 디아스포라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 한국의 개신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 “개독교”라는 용어가 한참 동안 한국사회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떠돌아다녔다.³¹ 수많은 이단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난립하고 생성되며, 사회로부터는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니고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의 모습이다. 이러한 디아스포라적인 한국교회의 현실이 한국교회의 책임에 기인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성장지향적, 물량주의적인 목표를 추구하면서 좁은 지평의 영역에 갇혀 있는 것이 그 원인들 중의 하나이다.³² 그리고 이러한 한국교회의 디아스포라의 특징들이 고스란히 미국한인교회에도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날 미국한인교회들의 대부분이 미국교회의 직접적인 전도가 아니라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디아스포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흩어져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도 흩어지기 이전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 관하여 정체성을 지키려는 시도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 정체성 간의 혼합을 의미하는 크리올화이다.³³ 로빈 코헨과 올리비아 셰링엄은 크리올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크리올화는 상호작용하는 서로 다른 사회들 간의 이종교배를 뜻한다. 혼종성,

³¹ 백상현, “개독교 개역사 포털 속 기독교 비하 욕설 . . . 교계 무관심에 독버섯처럼 쑥쑥” 『국민일보』 2012. 10. 23. 25쪽.

³² 이범성, “에큐메니칼 운동이 필요한 이유”, 『21세기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에큐메니칼위원회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36-37.

³³ 로빈 코헨, 올리비아 셰링엄, 『다름과 만나기』, 18.

혼혈, 문화상호주의, 다문화주의, 다문화, 복합문화, 문화횡단, 문화다원주의, 혼합주의와 혼합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말들이 너무 넘쳐난다고 볼 수도 있을텐데, 여기 적지 못한 말들도 몇 개 더 있다.³⁴

결국 크리올화는 기존 정체성의 파괴와 함께 진행되는 혼합주의로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크리올화는 이미 역사 속에서,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이스라엘 족속이 이방 민족과 어울려 살며 이방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고 혼합주의로 빠져드는 일들을 빈번하게 볼 수 있었고 때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식민지배를 통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혼합주의는 세계화시대라고 불리는 오늘날에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볼 수 있지만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에 우상숭배를 강력하게 경계하시고 이방의 문화와의 혼합주의에 대해 경계할 것을 강조하신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

크리올화, 혼합주의는 긍정적으로 말하자면 적응과 창조, 공유로 해석할 수도 있다. 같은 공간이나 상황 속에 모인 다른 전통과 가치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며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가는 오랜 세월 다름과 마주하는 역사의 숙제였다.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있으면서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시도보다는 다른 문화와 전통이 서로 섞이고 혼합되어 기존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더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러한 논리는 식민지배와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역사 속에서 앗수르나 바벨론, 헬라, 로마 제국의 경우 강제로 이주를 시키고 고유한 종교와 전통을 말살하려고 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³⁴ 로빈 코헨, 올리비아 세링엄, 『다름과 만나기』, 18.

파괴하려고 했다. 또한 한국은 일제 식민지배하에서 신사참배, 창씨개명을 비롯하여 일본어만을 사용하도록 강요되었던 역사가 있다. 모두 사회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 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혼합주의를 주장했으나 결국은 억압의 도구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를 강력하게 금지하신 것은 디아스포라이며 약자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강력한 나라와 민족들에게 휘둘리고 삼켜져서 억압당하지 않기 위한 명령으로 볼 수 있다.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배타적이고 포용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인간을 도구화하지 못하게 하는 보호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디아스포라는 고난과 억압과 폭력과 학살의 가시면류관 경계선을 지닌 개념이며 또한 동시에 스스로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신앙과 신념의 경계선을 지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디아스포라의 고난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버리고 철저히 혼합되고 동화되고 융화되어서 고통과 고난, 갈등과 분열의 경계선을 제거하고 회피하려는 선택이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도 사실이다. 이것이 가장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공동체이고 사회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룩할 수 있는 경계선이 없는 나라, 하나 된 나라, 하나의 나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된 나라, 하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하나됨을 추구하시지 않음을 밝힌다. 예수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들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눅 12:49-53)라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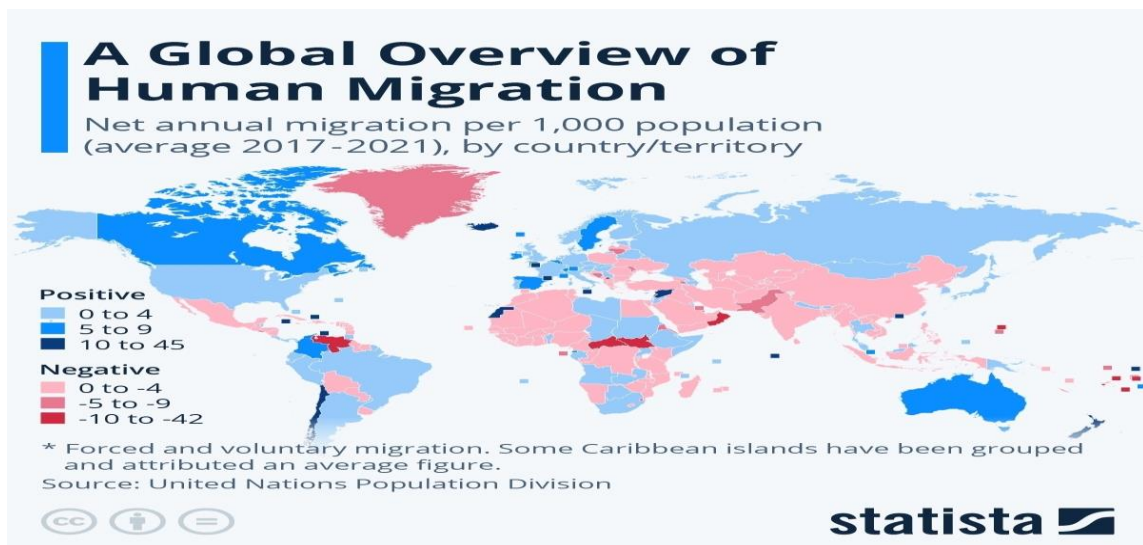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을 하나되게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관계로부터 갈라서게 하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하나됨,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하나됨을 거절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이다.

예수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 17:14-22)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하나됨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로 인도하신다. 때로는 복을 주시기 위해 디아스포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징벌과 책망을 위해 디아스포라로 인도하신다. 결국 디아스포라 자체는 복이 될 수도 책망과 형벌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디아스포라이다.

오늘날 교통과 통신, 산업과 과학의 발달로 세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아프리카인 디아스포라들은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고, 아시아의 이민자들, 국제적인 난민들이 증가하면서 오늘날은 이주의 시대, 난민의 시대, 세계적인 디아스포라의 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이중국적, 삼중국적도 늘어나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로 이주하고 망명하는 일들이 점차 증가하고 흔해지고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된 것이다.

<그림 3> 세계 이민자 현황(자료출처: statista)



근대의 동남아시아에서 중국계 이주민들은 토착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1930년대 태국은 중국계 이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중국계 이주민들의 사업에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결국 견디지 못한 태국의 중국계 이주민들은 태국 사회에 거의 동화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중국계 이주민들도 인도네시아의 탄압과 박해로 인해 10만여명 이상이 인도네시아를 떠나게 되었다. 중국으로 돌아간 이들도 중국에서 환영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두 문화의 경계선 사이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고향이라는 존재를 상실하게 되었다. 근대 동남아시아에서 인도계 이주민들 또한 핍박과 박해와 추방을 경험하였다. 동아프리카의 인도계 이주민들도 토착민들과 융화되지 못한 채로 오히려 토착민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식민지를 운영하는 영국을 비롯한 제국의 그늘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추방을 당하게 되는 일도 벌어졌다. 그래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으로 망명하는 인도계 이주민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이들은 환영받지 못했다.³⁵

UN은 탈식민 이후 쫓겨난 이주민들(주로 중국계)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했다. 흔히 난민 하면 오랫동안 전쟁, 질병, 기아를 겪은 이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난민 문제에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면서, 난민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1950년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설립된 UN난민기구(UNHCR)는 전 세계 모든 난민들에게 인도주의적 구호를 제공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난민 문제는 대량 이주와 디아스포라 개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였다.³⁶

근대의 디아스포라는 점차 난민 문제와 연결되기 시작했으며 박해와 핍박과 폭력과 학살을 경험하는 비자발적인 대량이주의 형태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과정에서 토착민들에게 크리올화되는 선택을 하거나 디아스포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이주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이주를 선택하더라도

³⁵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is』, 152-156.

³⁶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is』, 157-158.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소속되지 못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현대에 들어와서 UN에서는 2000년에 12월 18일을 세계 이주민의 날로 정했다. 일반적으로 국제 이주민의 기준은 1년 이상 타국에 거주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이 기준으로 2010년에는 난민과 국내 실향민을 제외한 2억명 이상이 이주민인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이주민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받는 충격은 과거보다 덜한 것이 사실이다. 현대에 디아스포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의 특성과 종류보다는 단순한 인구 이동으로서 숫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 현대의 이주는 과거 남성의 단독으로 혹은 단기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현대에 들어서는 여성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인해 과거의 이주와는 다른 차이점을 보인다. 남녀 평등으로 인한 현상이라기보다는 모국의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이주하려는 나라의 산업에서 모두가 기피하는 분야에 여성들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노동인구로서 여성의 이주가 늘어나거나, 가족 단위로 이주하여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여성들이 이주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³⁷ 그래서 현대 디아스포라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여성들은 이주한 곳의 산업현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가정 내에서의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일들이 증가하였다.

현대의 이주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더욱 쉽게 되었고 고국과의 연결성이 강화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전달되고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디아스포라화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는 새로운 디아스포라 개념으로 볼 수 있다.³⁸ 케빈 케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느 학자의 말처럼 ‘장거리 민족주의’가 등장하기에 좋은 환경이다. 이 정치 참여 방식은 강렬하지만 묘하게 추상적이며, 해외에서 보람 있는 삶을

³⁷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is』, 161-165.

³⁸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is』, 165-166.

찾으려는 노력의 부산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분명한 역사적 선례가 있다. 이주자들은 고국을 돕는 방법 못지 않게 새로운 정착지에서 성공하는 길도 디아스포라적인 민족주의 안에서 항상 찾아냈다.³⁹

역사 속에서 디아스포라는 점차 크리올화되는 경향으로 가는 것이 현실이다.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개인주의가 강화되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정체성을 공유하는 공동체 집단의 생존 보다는, 공동체 집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해지고 개인주의적인, 가족중심적인 생존과 이익 추구의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그리고 가족 내에서도 갈등과 불평등의 경계선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강화되는 경향도 있다.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으로서의 성경읽기

바벨론에 의한 유대인들의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며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역사와 율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⁴⁰ 땅과 나라와 성전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체성을 지키며 디아스포라의 험난한 세월을 견딜 수 있었다. 구약성경을 통해서 온 세상의 기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기억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통과 정체성의 기준으로 삼았던,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강조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기억하라는 것이었다.

애굽에서 디아스포라 나그네로 지내다가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방황하는

³⁹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is』, 166.

⁴⁰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is』, 14.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거주할 땅보다 기억하고 지켜야 할 말씀과 율법을 먼저 주셨다.⁴¹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던 성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지 않음을 강조하셨다.⁴²

앗수르의 침공으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한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여러 번에 걸쳐서 강제로 흩어질 수 밖에 없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지도자가 없이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율법과 역사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 서기관은 지도자들의 비서로서 지도자들의 말을 받아적는 일만 했다. 그러나 디아스포라 상황에서 그들은 구전되어 내려오는 율법과 역사를 문서화하고, 사라진 성전에서 가져온 기록들을 필사하고, 유대의 전통 기록들을 정리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제사장 중심의 성전이 없어지고 디아스포라 상황에서는 서기관 그룹이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⁴³

이 시기에 바벨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바벨론 곳곳에 회당을 설치하고 공공예배와 종교교육을 실시했다.⁴⁴ 회당은 10여명 이상의 남성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 후 쉘마를 교독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해석하고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었다. 예수도 회당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⁴¹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신 30:15-16)

⁴²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기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왕상 9:6-9)

⁴³ 폴 존슨, 『유대인의 역사』, 147-148.

⁴⁴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339.

읽고 전하였으며 바울도 선교여행 중에 회당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증거하였다.

회당은 말씀과 율법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한 법정의 역할도 감당하였다.⁴⁵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 일부는 상인이 되어 서기관의 활동을 비롯해 유대인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돕고 후원하였다. 서기관들과 회당을 중심으로 바벨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신앙교육과 할례, 안식일을 통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며 소리 내어 읽고 암기했다.⁴⁶

가나안에 정착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은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라가 부강할수록 더 타락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안정되고 풍족할 때마다 유대인은 이방의 문화에 이끌리고 자신의 땅에서조차 이방 문화에 크리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곤 하였다. 오히려 고난이 닥칠 때 원칙을 지키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독립된 국가가 없을 때,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고통당할 때 더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높이려는 경향도 보이는 것이다.⁴⁷ 그래서 땅의 경계선 안에 정착하고 안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고난과 고통 환난이 시작되고 타락과 부패가 진행되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땅의 나라, 세상의 나라, 인간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악하게 보인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질서를,

⁴⁵ 『간추린 비전 성경사전』, 651.

⁴⁶ 폴 존슨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 6:6-9)의 말씀이 제대로 자리 잡은 것이 이시기라고 추측한다. 폴 존슨, 『유대인의 역사』, 149.

⁴⁷ 폴 존슨, 『유대인의 역사』, 150.

인간의 통치와, 인간이 만들어낸 경계선을 무너뜨리시는 장면을 자주 보인다.⁴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기도하기를 “여호와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데도 여호와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데도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데도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가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삼상 2:6-8) 라고 증언한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질서와 경계선을 무너뜨리시고 심지어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마저 초월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과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이어져 내려온다.

바벨론 디아스포라 생활 70년을 끝내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며 기다리는 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디아스포라 생활을 견뎌낸 이들이 레갑 족속⁴⁹의 후예이고 콤란 공동체⁵⁰의 기원이 되었다.⁵¹

고레스 왕에 의해 귀환을 시작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든 백성이 광장에 모여서 모든 백성 앞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소리내어

⁴⁸ 폴 존슨, 『유대인의 역사』, 150.

⁴⁹ 레갑 자손은 겐 사람 레갑의 자손이며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공격당할 때 예루살렘에 있었다. 레갑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도 유다 광야에 머물며 유목생활을 했고 예레미야를 통해 이들이 선조 요나답의 명령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음으로 순종의 본을 보여주게 된다. 『간추린 비전 성경사전』, 138.

⁵⁰ 신구약 중간기의 마카비 혁명 이후 에세네파는 성전이 아니라 율법의 준수가 진정한 예배라고 믿으며 성전 중심의 사두개파의 정치와 대중으로부터 분리되어 사해 주변의 콤란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다. 재산을 공유하고 예배와 독서, 공동식사를 중심으로 생활했다. 조병호, 『신구약 중간사』 (서울: 통독원, 2021), 136.

⁵¹ 폴 존슨, 『유대인의 역사』, 151.

읽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유대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계시나 설교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확립하게 되었다. 그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확정된 권위있는 성경이 아니더라도 신앙의 기록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고 예언자들의 기록, 역사서와 연대기의 기록들이 풍성했다. 정리되고 확정된 구약성경은 그 기록들의 일부분이다. 당시 성경의 기록들은 저자를 표시하고 있었지만 개인적인 기록이 아니라 공동체의 승인과 권위를 거쳐야만 했다.⁵²

요세푸스는 이렇게 귀환한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의해 승인되고 인정된 성경의 기록을 “캐논”으로 표현하였다. 수메르인들로부터 기원한 캐논이라는 단어는 바르고 곧은 갈대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리스인들은 지켜야 할 규범과 기준, 경계를 의미했다.⁵³ 귀환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고향 땅으로, 모국으로 귀환했음에도 여전히 나라가 없는, 나그네와 같은, 우거민이 되어 디아스포라로서 살아가야만 했다. 귀환 이후에도 그들은 성전과 회당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듣고 지키며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다. 독립된 나라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성경읽기를 통한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그들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식민통치를, 나그네 생활, 우거민의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이번에는 그리스의 식민통치를 받게 된 유대인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했다. 그러나 점차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영적인 개인주의가 유대인들을 내부에서 분열하게 하고 종파주의의 경계선을 강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반발하여 레갑 족속과 콤란 공동체 등이 광야로 나가게 되고 신앙적 정체성의 순수함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들 또한 지속적으로

⁵² 폴 존슨, 『유대인의 역사』, 156.

⁵³ 폴 존슨, 『유대인의 역사』, 157.

나타나고 있었다.⁵⁴

그리스의 식민지배 하의 유대 디아스포라들 중에 모세의 율법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그리스 철학을 흡수하여 구전 율법을 만들었다. 사두개파는 이미 기록된 율법만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⁵⁵ 디아스포라의 현실과 성경 말씀에 관계에 대해서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게 되었다. 말씀과 현실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만나게 된 새로운 경계선의 문제였다.

디아스포라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과 해석에 관해서 개혁파와 정통파가 대립하게 된 것이다. 단순히 기록된 말씀을 지킬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지킬 것인가로 인해 경계선이 나뉘게 되고 분열과 갈등이 심지어 공격과 학살이 자행되기도 하였다.⁵⁶

그리스 지배하에서 신앙적인 정체성이 공격당하고 성전이 더럽혀지는 사건들로 인해서 발생한 마키비 혁명은 유대 디아스포라인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성공한 혁명으로 인해 유대인의 독립국가를 수립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이 아니라 신앙적 정체성과 성경을 권력의 도구로 삼는 타락하고 부패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마카비 가문은 멸망하고 유대인들은 고향 땅에서 로마에 의해서 또 다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까지는 성경을 듣고 읽고 순종하느냐 안하느냐의 경계선의 문제였다면 귀환한 이후 그리스 식민지배 하에서는

⁵⁴ 폴 존슨, 『유대인의 역사』, 172-173.

⁵⁵ 폴 존슨, 『유대인의 역사』, 176.

⁵⁶ 폴 존슨, 『유대인의 역사』, 176-182.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경계선이 되고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예수 시대는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유대인들은 로마와의 정치적인 관계에 신경을 쓰고 다양한 문화와 사상, 사고방식, 다양한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문화적인 디아스포라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 불안한 위기 상황 속에 어떤 사상이나 종교나 사고방식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예수는 이러한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인 디아스포라의 시대에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통찰력의 가르침을 전하였다.⁵⁷

반면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나 헬라의 가르침과 사상에 대해서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입장과 자세를 견지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계선을 긋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두개파도 바리새파도 에세네파도 예수의 가르침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은 배우지 못한 평범한 유대인들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생계 유지가 더 급한 이들이었고 소외된 사람들과 죄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안에서도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인들이었다.⁵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를 따르던 모든 이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다. 또 다시 디아스포라로, 더 심각한 디아스포라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부활한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예수를 따르던 이들, 디아스포라 안의 디아스포라였던 이들은 즉시 다시 모이지 못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부활한 예수는 디아스포라가 된 제자들과 따르는 이들을 찾아 와서 다시

⁵⁷ 폴 존슨, 『기독교의 역사』 김주한 역 (서울: 포이에마, 2023), 65-66.

⁵⁸ 폴 존슨, 『기독교의 역사』, 72.

사명을 맡기고 성령강림에 대한 약속을 주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이들에게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 이후에 비로소 제자들과,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을 믿고 전하는 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흩어진 제자들과 사람들 가운데 부활한 예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한 이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예수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은 율법과의 경계선을 긋고 율법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 5:17-20)라고 말하였다. 자신의 가르침이 율법의 경계선을 강화하거나 율법을 반대하여 경계선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율법을 긍정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것임을 말하였다. 예수의 가르침은 배제와 분리, 적대가 아니라 이해를 통한 초월과 포용의 완성이다.

바울은 스스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정통 유대인이며 정통적이고 순수하게 율법을 추구하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다. 그는 누구보다 유대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시에 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중 국적자이며, 이방지역인 다소로 이주한 이주민이었다. 그는 이주민으로서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 한편으로 그는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예수의 이야기와 경계선을 긋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⁵⁹ 그렇게 기독교인들, 특히 유대 기독교 인들에게는 바울은 경계선 너머에서 도저히 용화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가 경계선 너머의 바울을 부르고 사용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바울은 그리스, 로마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며, 그리스식으로 사고하는 유대인을 비롯한 이방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유대교식의 개념과 용어들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복음을 증거하였다. 오히려 유대교보다 그리스 세계에서 예수가 신적인 존재인 것을 설명하고 설득하기가 더 쉬웠고 그리스 문화의 디아스포라들이 예수의 신성을 더 쉽게 받아들인 것이다.⁶⁰

성경에는 바울의 선교 당시, 초기 예루살렘 회의 시기에 율법과의 관계성의 문제가 바울의 선교와 이방 디아스포라 선교에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 기독교와 바울은 부딪히고 충돌할 수 밖에 없었다. 유대 기독교의 경계선 너머에서 유대 기독교와 적대적이던 바울을 기독교인으로 부르셨으나 바울은 유대 기독교인의 경계선 안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는 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해 유대 기독교의 경계선을 초월하게 되었다.⁶¹

초기 기독교 시대에 교회는 수많은 이단들과 치열한 논쟁과 투쟁을 경험했다. 신약성경이 확정되고 교리가 정리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폴 존슨은 신약성경의 정경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⁵⁹ 폴 존슨, 『기독교의 역사』, 81.

⁶⁰ 폴 존슨, 『기독교의 역사』, 83-84.

⁶¹ 폴 존슨, 『기독교의 역사』, 90-91.

신약성경의 정경화는 이단에 대항하기 위한 하나의 무기로 사용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이단은 어떤 일정한 창시자에 의해 생겨난 것만은 아니었다. 즉, 이미 대중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사상들을 토대로 이단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경이 점차 확고하게 마련되자 교회는 이단에 물든 대중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도할 수 있게 되었다.⁶²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 교회,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신약성경은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자체가 디아스포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흩어진 말씀들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품은 말씀과 기록들이 정리되는 과정 속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이방인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구원의 복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성경, 특히 신약성경은 문화와 언어의 경계선을 초월하고 포용하고 거듭나게 한다. 심지어 세상의 경계선을 초월한다.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은 신성시 여겨지는 정치적인 지도자의 상징이었고 예수에게 사용된 왕이라는 칭호는 당시 유대의 지도자나 로마의 황제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였다. 복음이라는 단어도 황제의 생일과 연결된 단어로 사용되었던 것이다.⁶³

예수 당시에 예수와 예수의 말씀들, 예수 이후에 예수의 이야기들을 세상은 세상의 경계선 안에서 해석하고 세상의 경계선 안의 존재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들이 이어졌지만 예수와 예수의 말씀들,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경계선들을 초월하게 되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예수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제임스 월호이트와 에반 하워드는 성경읽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⁶² 폴 존슨, 『기독교의 역사』, 116.

⁶³ 에버렛 퍼저슨, 『초대 교회 배경사 제3판』, 68.

한다.

신약성경이 완성된 직후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편으로 기쁨과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성경을 읽곤 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성경 읽기는 기도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 사막으로 향했던 사람들 사이에 특히 유행했다. 4세기에 이르러 많은 교회가 성경을 경건하게 읽는 훈련을 받아들였다. 렉시오 디비나는 사람들을 성경읽기에 몰입하게 했는데, 그 취지는 성경을 기도와 묵상의 맥락에서 읽게 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성경을 변혁적인 친밀성에 이르는 관문으로 활용하는 것이다.⁶⁴

신약성경이 완성된 이후 성경읽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형성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또한 정해진 경계선 안의 공간이 아니라 사막을 비롯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정체성을 지켜주는 초월적 영적인 경계선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도 디아스포라로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지키며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견디며 땅의 부정적인 경계선, 억압과 증오와 배제의 경계선을 초월하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오늘날 디아스포라로서의 한인이민교회의 상황

사람들은 누구나 안정되고 정착하는 삶을 원하면서 동시에 더 나은 환경과 상황의 인생을 원한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안정과 향상을 위한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주와 이민을 선택하면서 디아스포라의 길로 들어선다. 그러나 그렇게 이주하고 이민하며, 새롭게 정착하고 또 다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길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 모험하고

⁶⁴ 제임스 월호이트, 에반 하워드, 『렉시오 디비나』 홍병룡 역 (고양: 아바서원, 2023), 14.

적응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⁶⁵

한인이민교회 특히 뉴욕의 한인이민교회는 수많은 경계선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뉴욕의 한인이민교회들이 경험하는 경계선들은 그리스도인 한인이민자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 정체성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경계선들로 말미암아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오히려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첫 번째 경계선은 한인 이민 1세대와 이민 2세대의 경계선이다. 대체로 이민 1세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한국을 경험하고 한국에 정서적인 뿌리를 둔 채로 미국으로 건너온 한인 이민자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민 2세대는 이러한 이민 1세대들의 자녀들로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한국을 이야기로만 경험하거나 정서적인 뿌리는 미국에 두고 한국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세대를 의미한다.⁶⁶

이민 1세대의 특징은 우선 대부분이 영어라는 언어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물론 한국에서 영어를 준비해서 전문직으로 이민을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이민 1세대들의 경우 언어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세대들이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복지시스템과 혜택에서 소외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그래서 문화와 제도가 다른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첫발을 내딛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한인교회의 도움이 절실한 세대였다. 한국에서의 종교가 무엇이었던 간에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미국이라는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야만 하는 세대들이었다.

⁶⁵ 전중현, 『이민교회』 (서울: 한들출판사, 2018), 10.

⁶⁶ 전중현은 이민 1.5세대와 2세대를 차세대로 표현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차세대는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로, 겉모양의 생김새는 한국사람임에 틀림없지만, 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 전중현, 『이민교회』, 219.

미국으로 이민오는 수많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고향의 종교를 가져와서 종교공동체를 먼저 이루는 경향이 있었다. 이민자들이 적응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종교공동체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민 사회를 향한 디딤돌의 역할을 해왔고 한국인들의 경우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한인사회의 기초로 삼았다.⁶⁷

또한 가정과 자녀에 대한 아픔과 미안함이 많은 세대이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이들이 처음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봉제공장을 비롯해, 세탁소, 네일샵, 빌딩청소 등 하루에도 몇 건씩 일을 하고 해뜨기 전에 나가서 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고 집에 가두어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 상처와 아픔 미안함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이었다. 신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가 없었고 한국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한인교회에서 만나는 한국 사람들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를 할 수 있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교회는, 신앙생활은 생존 그 자체였다.

이민 1 세대는 한국에 대한 생각과 생활방식이 이민을 떠나올 당시의 한국의 상황과 문화에서 멈추어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으로 오기 전에 한국에서 생활하던 그 생각 속에서 이민생활과 교회생활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이민 2세대의 특징은 한국어보다 영어가 편한 세대라는 것이다. 1세대들이 언어로 인해 서러움과 불편함을 많이 겪어서 자녀들이 영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을 강조하며 자녀들을 길렀다. 또 1 세대들이 미국의 문화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만나는 충격과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들은 미국 문화와

⁶⁷ 전중현, 『이민교회』, 10.

사고방식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미국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였다. 문제는 그러다보니 1세대와 2세대 간에 대화와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부모 자식 간에 점점 대화가 불가능해지고 서로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나마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한국어를 조금씩 사용하게 되고 한인교회를 통해서 한국어에 대한 경계가 넓어지게 되고 1세대와의 경계가 어느 정도 허물어지게 된다.

그러나 2세대에게 한인교회는 부모를 위한 자녀의 노력 또는 희생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2세대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한인교회를 떠나게 되고 미국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직장으로 인해 다른 주로 이사를 하거나 다른 인종과 결혼을 하게 되면 1세대와의 관계는 거의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1세대와 2세대의 경계 문제가 미국에 있는 한인이민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분열과 갈등의 문제이다.

전중현은 한인이민교회의 차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배경에 대하여 데이비드 키나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로, 방랑자(nomads)는 자신이 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새로운 믿음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것을 우선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로, 방탕아(prodigals)는 아동 시절의 신앙을 잃어 전(前) 신자일 뿐, 기독교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스스로 신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셋째로, 유랑자(exiles)는 아직도 신앙문제에 시간을 배려하면서도 문화와 교회 사이에서 정체성이 상실되어, 교회의 소명이나 전문적인 직분의 참여에서 이탈한다.⁶⁸

⁶⁸ 전중현, 『이민교회』, 221-222.

미국이민교회의 차세대들은 디아스포라 내의 디아스포라가 되어 교회와 경계선이 생기고 스스로는 그것을 극복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방랑자, 방탕아, 유랑자는 역사 속에서 디아스포라가 본질적으로 가진 특성들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미국이민교회의 차세대들은 사회에서도 신앙적으로도 디아스포라인 것이다.

전중현은 이렇게 차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데이비드 키나만의 연구의 결과를 소개하면서 부모들과 교회들이 지나치게 차세대를 경계선 안에서 과잉보호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사문제와 대중문화를 비롯한 다른 문화와 세상의 문화로부터 자녀들의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자녀들의 타문화에 대한 접촉을 차단하고 오직 교회의 문화만 율법주의적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신앙방식과 해석을 고수하며 변화하는 세상의 상황과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고전적인 교리만을 강조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⁶⁹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는 세상 속에서 자라고 살아가는 차세대에게 교회가 과학에 대한 납득할만한 대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과학과는 동떨어진 비이성적인 공동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극단적인 보수주의를 강제하거나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배타적인 경향을 보이고 의심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실망과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⁷⁰

다음으로 한인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경계선의 문제는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그 자체로서도 경계선이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1세대와 2세대의 경계선을 비롯해 다른 수많은 경계선들을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⁶⁹ 전중현, 『이민교회』, 222-225.

⁷⁰ 전중현, 『이민교회』, 222-225.

된다.

코로나 팬데믹이 특별히 오늘 미국 뉴욕의 한인교회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한인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한인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신앙생활의 모습들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이 경계선으로 인해 불거지는 갈등들도 많다.

제이슨 쉐커는 이미 십수년 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재택근무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했다. 기업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직원들이 정해진 사무실의 업무공간의 경계선 내에서 일하기를 바라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경계선을 벗어난 근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⁷¹ 교육 또한 온라인 교육이 코로나 이전부터 늘어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교실이라는 경계선을 벗어나 온라인 교육이 일상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전통적인 교육의 방식과 조직, 시스템이 큰 변화를 겪을 것이고 온라인 교육은 대폭 확장 될 것으로 예측했다.⁷²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주일성수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흔들렸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주일성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목숨 걸고 지켜야만 하는 절대적인 율법이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예배가 중단되고 대안으로 영상,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면서 과연 반드시 직접 대면하여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이 흐려지게 되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면예배를 하지 못하여 예배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가 커지고 아쉬움과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드시 대면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대면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⁷¹ 제이슨 쉐커, 『코로나 이후의 세계』 박성현 역 (고양: 미디어숲, 2020), 22.

⁷² 제이슨 쉐커, 『코로나 이후의 세계』, 35-36.

경우가 많아졌다. 많은 교회들이 한인교회의 전통이자 특징인 새벽예배를 코로나 팬데믹 통제 상황이 지나났지만 완전히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다.

예배의 형식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완전히 달라지고 예배 순서의 의미도 달라지고 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 마스크를 써도 비말이 퍼질 위험이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해 성가대를 완전히 폐지하는 교회들도 늘어나고 있다. 한인교회들의 특징인 예배 후 친교를 나누는 식사도 교회마다 없애거나 개별포장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대체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식사를 통한 친교와 교제의 개념은 약해지고 오히려 예배 참석에 대한 비용의 개념이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친교를 위한 식사를 강행하는 경우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강한 1.5세대 혹은 2세대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예배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소속감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제는 전세계 모든 교회들의 예배와 설교,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통해서 모두 검색하고 살펴볼 수 있게 되면서 온라인 쇼핑하듯이 예배와 설교를 선택하여 듣는 경우가 많고 예배와 설교, 교회를 비교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한 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교인으로 존재하면서 익명의 성도가 늘어가고 있다. 거룩한 예배라기보다는 흥미와 관심을 붙잡아 둘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가 되어가는 것이다. 제이슨 쉥커는 코로나 이후 미디어의 미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코로나19 이후 미디어의 미래는 결코 낙관적이지 못하다. 국가적 정체성에

균열이 생길수록 미디어는 악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악의적인 이용이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을 봐서는 사회를 하나되게 하는 힘 역시 점점 더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와 SNS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감추어졌던 것들을 활짝 드러냈다. 수면 아래에는 합의편향, 사이버심리전의 위험, 주관화된 진실 등이 숨어 있었고, 이것들 중 어떤 것도 긍정적이지 않다.⁷³

코로나 이후 미디어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악의적인 도구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의 도구로, 심지어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현상이 교회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존의 공동체의 정체성의 경계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자체를 해체하는 데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온라인, 익명의 성도가 늘어나면서 각 교회의 재정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면예배를 할 때에 비하여 재정 수입이 급락하게 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며 교회들 간에 빈익빈 부익부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회의 경우 영상과 예배 콘텐츠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성도들은 그러한 영상과 예배를 선호하게 되어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인력이 부족하여 영상과 콘텐츠가 부실해지는 교회는 점점 더 성도가 감소하여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서 교회를 폐쇄하거나 건물을 정리하고 온라인으로만 간신히 교회 이름을 유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교회간의 흡수합병도 증가하고 있다.

제이슨 쉥커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대면접촉이 필요한 서비스 산업의 위기를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 경기부양책의 지원을 받아도 대부분의 서비스 산업은 생계유지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파산을 할

⁷³ 제이슨 쉥커, 『코로나 이후의 세계』, 123.

것이고 이로 인한 부동산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했다.⁷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민 1세대들은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교회에 익숙해져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예배 형태와 의미가 이미 예배와 신앙의 기준과 모범으로 자리 잡혀 있다. 그러나 2세대들의 경우는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면서 1세대들의 교회, 예배, 신앙의 기준과 모범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기준과 모범이 뿌리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경계가 이민 1세대와 2세대의 경계선의 골을 더 깊게 만들고 있다.

다음으로 한인이민교회들이 경험하는 경계선의 상황은 인종의 경계선이다. 1세대 이민자들과 2세대 이민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인종의 벽이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인종의 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주류사회로의 진입은 다른 인종들에 비해서 진입장벽이 너무도 높다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수준, 재정상황과 관계없이 인종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다. 백인과 유색인종의 경계가 존재하고 유색인종 가운데서도 흑인과 아시아인의 경계가 존재한다.

“Black Lives Matter” 라는 구호가 나타내는 것은 흑인에 대한 차별과 그에 대한 저항이다. 그만큼 흑인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과 경계가 미국 사회 내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차별받은 흑인들이 아시아인들을 차별하는 경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이미 아시아인들의 높은 교육열과 성실성으로 인해 흑인들의 일자리와 학업에 대한 기회가 아시아인들에게 빼앗긴다는 불만이 늘어나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의 진원지로 중국이 지목되자 중국인, 아시아인들에

⁷⁴ 제이슨 쉐커, 『코로나 이후의 세계』, 100.

대한 분노와 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중국인과 같은 아시아인들이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 대낮에 길거리에서 이유없는 폭행의 대상이 대부분 아시아인들이 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러한 인종의 경계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핍박받고 박해 받는 아시아 이민자로 살아가는 한인이민교회의 성도들, 특히 1세대 이민자들의 신앙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뉴욕의 이민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경계는 바로 911테러사건이다.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미국인들 전체가 경험한 경계가 911사건이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은 911 이전의 미국과 911 이후의 미국으로 나누어진다고들 한다. 그만큼 911 이전의 미국 특히 911사건이 일어난 뉴욕은 그 경계선의 변화가 매우 심한 편이라고 한다. 911로 인해 이민자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매우 강경하게 변화되었고 1세대가 911 이전에 경험한 미국사회와 911 이후에 2세대가 자라면서 경험한 미국의 경험은 확연하게 다른 것이다.

911 사건 직후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공황을 경험하면서 젊은이들 가운데는 정신적공황과 허무와 고독을 잊기 위해 육체적인 쾌락에 탐닉하는 경향이 늘었다고 한다. 이민자 심사 강화를 하는 등 국적과 인종, 이주에 대한 경계선을 강화하게 되었다고 한다.⁷⁵ 911 사건을 경험한 세대는 정신적인 불안과 공황을 품은 채로 심리적, 사회적 경계선을 강화하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림 4> 9·11테러 이후 후유증의 종류(자료출처 : 동아일보)⁷⁶

⁷⁵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111100034>

⁷⁶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110903/40036127/1>

9·11테러 이후 후유증의 종류



후유증 앓는 것으로 등록된 2만700명 대상. 중복 응답
 자료: 미 연방정부 '9·11 의료 모니터링 프로그램'

또 다른 종류의 경계는 한인이민교회들이 혼하게 겪는 리더쉽 교체의 경계선이다. 뉴욕의 많은 교회들이 개척 목회자의 은퇴로 인해 후임 목회자의 선정과 청빙, 부임의 경계에서 큰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많다. 리더쉽 교체의 어려움은 비단 뉴욕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이 있는 일이지만 다양한 신앙배경을 지닌 이민자교회의 경우 그 경계선의 갈등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웃교회의 경우에는 수년간 청빙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차례 청빙 위원회가 해산되고 오랫동안 당회가 열리지 않아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다.

개척한 목회자의 은퇴 이후 간신히 청빙을 하였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사임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고소고발 사건도 많다.

이러한 경계선의 배경에는 단순히 전임자와 후임자의 감정적 갈등이 아니라 교회 내에 존재하는 경계가 리더십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전임자의 목회, 1세대의 목회,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교회와 목회에 익숙한 세대와 2세대들이 주축이 되는 목회,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상황과 변화에 맞는 목회를 원하는 패러다임 변화의 경계가 갈등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전중현은 미국 한인이민교회의 교회 구조에 대해서 미국인 교회에서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계급적인 교회 행정에서 벗어나, 목사와 평신도들이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서로 변해야 한다는 점이다. 믿음은 섬기는 자세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새로워질 수 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현상유지를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가 되는 계기는 목회자와 평신도 간에 계급의식 없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제자의 도리에 평신도의 신급을 두지 않는 것이 하강 상승의 도, 다시 말하면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가는 도인 십자가에 접근하는 길이다. 이민교회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깊은 경지에 이를 수 없다.⁷⁷

미국한인이민교회의 리더십 교체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계급적 경계선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또한 단순히 전임 목회자와 후임 목회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계급적 경계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급적 경계선은 상대방보다 나를 높이거나 앞세우는 것이다. 이 또한 본질적으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을 배척하는 경계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⁷⁷ 전중현, 『이민교회』, 230-231.

것이다. 미국한인이민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디아스포라로서 근본적으로 가지는 불안과 갈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미국한인이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의 경계선 안에 있으면서도 내부적으로 그 말씀과 가르침을 거부하는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 23:10-12)라고 기록하면서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한인이민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계선은 사람간의 경계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이다.

제 III 장

하나님 나라 One Story로서의 성경통독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은 단순히 이 땅에 경계선으로 구획지어진 영토로서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요아킴 예레미아스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다고 보고 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 복음서에서 예수는 63회나 언급을 하게 된다. 그리고 랍비 문헌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 즉 하나님께 복종하라, 쉘마를 반복하라, 개종자가 되라와 같은 상투적 문구에 제한되었다”⁷⁸ 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고 선포된 말씀에 의해 통치되고 그 말씀에 몸과 마음으로 순종하는 백성들의 믿음의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라는 경계선이 있으면서 또한 경계선을 넘어서는 나라이다. 조병호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78 요아킴 예레미아스, 『신약신학』 정충하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12), 62-63.

이야기 한다.

하나님은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즉,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복의 통로로 세우신 제사장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장 나라를 수렴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가득합니다.⁷⁹

조병호는 율법과 선지자로 상징되는 제사장 나라를 예수가 제사장 나라의 율법대로 절기를 지키고 성전세를 내셨고, 환자를 치유한 이후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을 것을 지시하며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존중하셨고 충실했으며, 이 제사장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완성되는 나라임을 강조하고 있다.⁸⁰

로마는 구약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신약성경에만 등장하지만 신구약 중간시기부터 오늘날까지 전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이다. 오늘날의 기독교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를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로마와 기독교의 역사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단순히 기독교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문명의 기초에 로마의 문화가 매우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모두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법은 한 나라의 시스템 그 자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는 법에 의해, 법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 법을 통해서 사형선고를 내리고 법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제한하기도 한다. 조병호는 “성경과 고대정치”에 의하면 오늘날의 현대 세계의 법의 뿌리가 바로 로마법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 법이 로마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현대의 모든 나라들과 문화가

⁷⁹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20), 37.

⁸⁰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15.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다.⁸¹ 몽테스키외는 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법은 사물의 성격에서 유래하는 필연적 관계다. 그리고 이 같은 의미에서 모든 존재는 그들의 법을 갖는다. 신들도 그들의 법을 갖고 있다. 물질세계에도 그것의 법이 있다. 인간보다 우월한 영적 존재들도 그들의 법이 있다. 짐승들에게도 그들만의 법이 있다. 인간들도 그들의 법이 있다.⁸²

법은 관계이며 경계선을 이루는 “말씀”이다. 언어에 의해서 제한되고 한정되는 경계선이며 문화이며 관계이다. 그래서 법 그 자체는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에 대한 인간의 자세와 태도, 응답이 사실상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될 때가 많은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규례, 법도, 언약 등과 같은 맥락으로 사용이 된다.⁸³ 그래서 이러한 말씀과 규례와 율법, 언약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와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과 법은 나라의 근간이며 핵심이다. 그리고 이 말씀과 법에 대한 인간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이 말씀과 법의 제정자와 선포자, 주관자가 누구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법과 말씀에 담겨 있는 제정자, 선포자의 목적과 의도, 법과 말씀의 최종적인 방향이 또한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몽테스키외는 신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인간은 법이라는 경계선을 벗어날 수 없기에 스스로 법칙을 정하게 되고 그 법칙은 인간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법칙을 정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인도해야 하지만 제한된 존재인

⁸¹ 조병호, 『성경과 고대정치』 (서울: 통독원, 2021), 254-255.

⁸²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이재형 역 (서울: 문예출판사, 2016), 21.

⁸³ 간추린 비전 성경사전』, 163.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오류와 무지, 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수한 정념에 사로잡혀서 창조자를 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⁸⁴

E. P. 샌더스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실천하는 “영역” (지리적이든, 시간적이든, 혹은 정신적이든), 하나님 나라가 “온다” 면, 주기도 안에서 요청된 그 결과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의 소멸이다. 바울에게서는 이것이 우주적 사건이 된다.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하나님에게 넘겨줄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될 것이다(고전 15:24-28).⁸⁵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에 적대하지 않는 순종으로 충만한 나라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밭 디디고 살고 있는 이 지구 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주적이며, 초 자연적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역에 대한 가능성이라는 것이다. E. P. 샌더스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 12:28)과 관련하여 예수의 말씀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선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의 말씀과 행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⁸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와 관계 있는 사회적 질서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⁸⁴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24.

⁸⁵ E. P. 샌더스, 『예수운동과 하나님나라』 이정희 역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9), 232-233.

⁸⁶ E. P. 샌더스, 『예수운동과 하나님나라』, 250-251.

그래서 예수에 의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며 동시에 피안적이다.⁸⁷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상징하며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와 미래, 또한 사회적이면서 초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경계선을 넘나들고 경계선을 초월하고 경계선을 품고 있는 것이다.

조병호에 의하면 로마는 유대를 통치할 때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다소 독특하게 분봉왕을 임명하고 총독도 파견하였다. 그들에게 정치와 군사를 맡기고 유대의 대제사장에게 종교를 맡겨 역할을 분담하고 마치 그들의 권리와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를 통해서 유대가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하며 적당히 타협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⁸⁸

성경은 마귀는 의심하고 배신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경계선을 강화하는 배경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의 하나인 뱀을 “이용” 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의심하게 하고 배신하게 하는 것이다. 뱀은 피조물의 하나이며 하나님에 의해서 아담에게 주어진 통치명령의 대상임에도 마귀가 그를 이용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정말 이 동산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처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허락하신 하와가 아담을 넘어뜨리는 배필이 된 것이다.

⁸⁷ E. P. 샌더스, 『예수운동과 하나님나라』, 432-433.

⁸⁸ 조병호, 『신구약 중간사』 (서울: 통독원, 2021), 178.

예수가 공생애 시작 때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시험을 당할 때에도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하였다. 정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거나 마귀에게 절하면 온 세상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렇게 예수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고 분리시키고 배신하게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었다.

시험과 유혹은 아담과 하와나 예수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누구에게나 있었다. 시험과 유혹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유혹을 이겨낸 사람과 이겨내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예수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로마의 지배, 로마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두렵기도 하고 또한 그 어느 제국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로마의 건물, 로마의 법, 로마의 군사력에서 벗어 날 수 없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로마에 적응하고 순응하고 “복종” 하고 “승배”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가 로마이며 로마의 황제가 승배해야 할 유일한 신이며 로마만이 복과 화를 줄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주는 것이다. 철저히 로마의 시스템과 문화에 젖어들게 만들어 종국에는 유대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보다 로마를 더 두려워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식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인 로마를 이용하는 것이다.

E. P. 샌더스는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자신의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행위로 임재하는 새로운 질서를 추구했다고 하며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새로운 질서에는 열두 지파가 재회집될 것이고, 새로운 성전이 있을 것이며, 군사력이 필요치 않고, 잉혼은 필요하지도 않고 허용되지도 않을 것이며, 소외된 자들-악인들이라 할지라도-이 한자리 잡을 것이며, 예수와 그의 제자들-가난한 사람들, 온유하고 낮은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는, 그의 기대를 받아들여 그들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그가 죽고 부활한 후에도 남아서 그 기대의 변화에 헌신했던 추종자들을 섬겼다.⁸⁹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당시의 로마를 포함한 세계의 제국들과의 질서와는 완전히 그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분리하고, 이용하고, 복종과 숭배를 폭력과 정치적인 술수로 강요하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되며, 낮아짐으로 품고 낮은 곳, 깊은 곳으로부터 변화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죽는 새로운 질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유대를 비롯해 수많은 나라들을 시스템으로 길들여서 집어삼키려던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입장에서 한 순간에 바꾸어 기독교를 인정한 것은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영국 선술집 주인의 딸인 헬레나의 신앙 때문이었다. 헬레나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었다.⁹⁰ 그녀의 신앙은 익숙함과 당연함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고 공로와 소유와는 거리가 멀었다. 시스템 속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아들에게 보여주었다. 훗날 황제가 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인정한 것은 박해 받던, 시스템에서 소외된 한 여인의 신앙 때문이었다.

로마의 시스템 아래에서 예수도 바울도 로마의 시스템에 의해서 죽임을

⁸⁹ E. P. 샌더스, 『예수운동과 하나님나라』, 581.

⁹⁰ 조병호, 『성경과 고대전쟁』 (서울: 통독원, 2021), 224-225.

당했다. 그러나 그 죽음이 결코 허무하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는 부활하였고 바울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였다. 그 복음이 시스템의 핏박과 학대 아래에서 생명을 이어가고 기어이 로마를 바꾸어 버린 것이다. 나중에는 로마의 유일한 국교가 되고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다. 로마가 유대인들과 그들의 종교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역사 속에서 드러난 것은 하나님께서 로마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복음이 로마의 시스템을 이겼다.

그런데 로마의 시스템의 잔재가 오늘날 교회와 복음을 물들이고 있다. 예수는 시스템에 물들어버린 성전의 폐기를 예언하였고 시스템을 벗어난 교회 시대의 시작을 알렸지만 이제는 다시 교회가 로마의 시스템에 물들어버린 것이다. 시스템이 없이는, 시스템을 벗어나서는 예배도, 선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교회가 되어 복음을 무기력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시스템이 복음을 이기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조병호는 그의 저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튜닝을 ‘오직 예수’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예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해 만든 예수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시의 책으로 주신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예수로 말합니다.⁹¹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기준, 내 경험, 내 생각 중심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오류가 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예수는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며 누구보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⁹¹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337.

자식들이라고 외쳤다. 그들의 기준과 관점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중심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답과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 사고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관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인간과 세상의 기호와 이익,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마치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는 것과 같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관점에서 태양을 보면 내가 서 있는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 감각의 착각이다. 실제로는 지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고 또한 스스로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현실도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감각에 의존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은 큰 오류와 착각이 되어서 허구적이고 거짓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인간의 생각에서 문제가 생기고 죄가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와 제물을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거절당했을 때, 그 당연함이 부인당했을 때, 익숙함이 부정당했을 때 그는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였다. 가인은 제사를 위한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자신의 소유물을 하나님께 베푼 것이다. 여기에 당연함과 익숙함의 함정이 있다. 감사와 감격은 없고 자신의 공로와 소유만이 남은 것이다.

예수 시대에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누구보다 말씀대로, 율법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것은 그들이 당연함과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공로와 소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분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대부분의 이유들은 익숙함과 당연함, 공로와 소유의 프레임에 교회가 젖어들었기 때문이다. 불의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익숙하고 당연한 교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공로와 소유로 착각하여 혈과 육에 대한 투쟁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교회, 신앙생활, 선교의 현장이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오늘날의 시스템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익숙함, 당연함, 공로, 소유의 프레임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한다. 시스템의 이야기에 길들여지면 안된다.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당연히 여기고, 내 소유와 공로에 취하면 안된다.

시스템을 벗어나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시스템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복음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능력이 있다. 로마를 변화시키고 로마를 품고 로마를 이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스템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홀로 죄의 짐을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시스템의 시험과 유혹에 물들지 않고 벗어나기 위해서, 진정 자유케 하는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야기로서의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이야기로서의 성경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는 시스템의 유혹과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현대문명이라는

시스템의 유혹에서 벗어나 세상을 품고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 해야 한다.

“지평융합” 과 “통섭” 으로서의 “통” 성경 읽기

가다머는 역사적 상황과 관련된 완결된 지평은 허구이며 어떤 문화의 주위를 경계선으로 두르고 있는 완결된 지평은 그저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라고 본다. 사람의 실존은 전적으로 특정한 관점에 매일 수 없기 때문에 매듭지어진 경계선을 가진 지평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과 지평은 역동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평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고 확정적인 경계선으로서의 지평의 개념을 부인하는 것이다. 가다머는 역사적 지평에 대해서 매듭지어져서 확정되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해석자가 그 지평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움직이는 역동적인 공간이라고 보고 있다.⁹² 가다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재의 지평은 끊임없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 있다. 우리는 모든 선입견의 타당성 여부를 부단히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근원인 전통을 이해하고 과거와의 만남을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러한 검증과정의 일환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평은 과거가 없이는 결코 형성될 수 없다. 현재와 무관하게 추구해야 할 역사적 지평이 존재할 수 없듯이 현재의 지평 역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해라는 것은 서로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이한 지평들의 상호융합 과정이다.⁹³

⁹²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 『진리와 방법2』, 189-190.

⁹³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 『진리와 방법2』, 192..

관찰자 또는 해석자가 처한 상황과 인식의 경계선으로서의 지평은 고정적이거나 확정적이거나 불변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지평과 현재의 지평, 그리고 현재에서의 서로 다른 지평들 간에 이해를 통한 지평융합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윤철호는 가다머의 지평융합은 가다머가 말하는 “영향사”의 경계선 안에서 발생하며 가다머에게 영향사는 “이해”라는 지평융합이 일어나게 하는 토양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가다머에게 영향사에 대한 인식이 의미하는 것은 텍스트를 이해하기 전에 텍스트가 드러내는 의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⁹⁴

가다머에게 참된 이해는 텍스트와 해석자의 지평융합을 통해서 가능하고, 이러한 지평융합은 전통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사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해석하는 자가 전통적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통적 텍스트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전통적 텍스트의 역사적인 지평을 얻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해석하는 자의 지평과 텍스트의 지평과 다름의 갈등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자기의 지평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서서 텍스트의 지평을 발견하고 얻어냄으로 갈등과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고,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⁹⁵

텍스트로서의 성경, 텍스트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지평을 넘어서서 그 텍스트의 지평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에서 이해를 위한 지평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텍스트는 단순히 과거의 전통적인 성경에만 해당되는

⁹⁴ 윤철호, 『기독교 인식론과 해석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268.

⁹⁵ 윤철호, 『기독교 인식론과 해석학』, 272.

것이 아니라 현재의 타자들 또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텍스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타자의 지평 안으로 들어가서 타자를 이해하는 지평융합이 일어날 때 비로소 타자는 예수가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참된 “이웃”으로 발전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지평융합적인 성경읽기는 우리가 성경의 지평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지평과 융합을 이루며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지평, 우리의 지평이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불변하는 고착된 경계선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영역임을 전제해서 인식해야만 한다. 그래서 지평융합은 통시적이며 공시적이다. 역사적이며 현재적이며 실제적이다. 그래서 지평융합적 성경읽기는 텍스트로서의 성경의 배경과 상황을 살피고 그 배경과 상황 속으로 우리의 지평을 넘어서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통적인 성경 텍스트의 지평과 우리의 지평이 융합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다. 성경의 지평을 우리의 지평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지평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구약성경의 지평, 신약성경의 지평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또한 동시에 구약성경의 지평 안에서 신약성경의 지평이 융합되어야 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지평 또한 융합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지평이 융합되면 오늘날 우리의 지평 또한 확장되고 경계선을 넘어 타자와의 지평이 융합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진화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은 19세기 자연철학자 윌리엄 휴얼이 처음으로 사용한 “consilience” 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지식의 대통합” 을 추구하는 학문적 목표를 주장한다. 원래 에드워드 윌슨은 미국 남침례교 소속의 교인이었고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신앙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나 세상과 우주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교회와 신앙으로부터 뛰쳐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결국 에드워드 윌슨은 과학, 진화생물학으로부터 답을 찾기 시작했고 진화생물학을

통하여 인문학과 사회과학, 심지어 종교까지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⁹⁶

최재천은 통섭의 개념에 대해서 “서양 학문 내에서의 경계들 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경계도 넘나들 수 있는 개념”⁹⁷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학문간의 단순한 통합이나 통일이 아니라 경계선을 넘어, 경계선을 초월한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다. 최재천은 통섭, 즉 “consilience”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의 한 와인 클럽의 와인의 이름이 “consilience”이고 그 “consilience” 와인에 대한 와인클럽의 홈페이지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 인용하고 있다.

Consilience는 한마디로 ‘지식의 통일성’을 뜻한다. 이것은 옛날 어느 교수가 과학과 그 방법론에 관하여 가졌던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다. 그는 그의 동료들이 과학을 이용하여 모든 것을 지극히 작은 단위들로 쪼개는데 여념이 없어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걱정했다. 그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른 것들과 조화를 이루며 통합되어 있으며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들을 분리하면 그들만의 고유한 존재의 이유가 손상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학자들에게 이 같은 관점을 잃지 말라고 호소했다. 그래야 모든 과학이 개념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이기는 하지만 와인에는 더할 수 없이 어울리는 말이며 우리 네 사람의 뜻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단어다. 와인은 바로 우주와 인간의 통일을 의미하며 와인을 만드는 사람은 이를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http://www.californiareds.com/consilience.html>)⁹⁸

통섭은 지평융합과 일맥상통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다. 획일적인 통일이나 획일적인 통합이 아니라 상이한 분야, 상이한 지평의 정체성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는, 영역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다.

최재천은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에 대해 나무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자

⁹⁶ 에드워드 윌슨, 『통섭』 최재천, 장대익 역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5), 31-38.

⁹⁷ 에드워드 윌슨, 『통섭』, 11-12.

⁹⁸ 에드워드 윌슨, 『통섭』, 11-12.

한다. 줄기를 중심으로 위로는 수많은 가지들이 뻗어져 나가고 아래로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는 많은 뿌리로 갈라져 있는 것으로 비유한다. 갈라진 가지들과 뿌리들은 다양하고 수많은 학문들을 의미하며 이러한 다양하고 갈라진 학문들이 만나고 연결되는 줄기가 바로 통섭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섭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한다.⁹⁹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환원주의(reductionism)의 영향으로 인하여 학문과 학문과 학문이 분리되고, 성경과 세상이 분리되고, 세대와 세대가 분리되고, 생활과 신앙이 분리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것으로 인해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천년간 성경이 이미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질문과 답을 던지고 있다. 오늘날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며 성경과 세상이 분리되는 것은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서거나, 성경의 근거가 약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환원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인간의 실패 때문이다.

성경을 환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러티브와 메타포를 깊이 통찰하고 통전적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비로소 세상을 향한 성경의 대답과 진리를 발견하기 시작할 것이다. 성경은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환원주의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 정, 의가 모두 동원되어 성경의 지평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성경이 지식의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통섭으로서의 유일한 텍스트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경의 지평 안으로 우리의 지정의를 던지는 전통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은 바로 성경 “통” 독이라고 볼 수 있다. 성경은 짜집기된 Quilt가 아니다. One

⁹⁹ 에드워드 윌슨, 『통섭』, 17.

Story로서의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고 통시적으로 읽을 때 수천년간 세상과 사람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발견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으로의 회복이 하나님과 세상을 통합하고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이 통합되는 통섭의 회복이 될 것이다.

조병호는 물체다 사건과 같은 대상을 인식하고 사고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통을 사용하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통이란 서로 다른 영역이나 방식, 관점이나 입장을 우선 그 각각으로 이해하고, 이어서 그러한 다름의 사이에서 그 관계성을 파악하고, 마침내 총체적 인식을 풍요롭게 하는 유익을 발생시키는 사고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통이라는 글자는 ‘통하다’ 라는 말로 표현될 뿐이지만, 필자가 말하는 통은 통이라는 글자를 사용한 외자의 단어로서 ‘통으로 보다’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¹⁰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평융합과 통섭은 조병호의 통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획일적인 통합이나 통일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 존중과 포용, 이해로서의 개념인 것이다. 조병호는 이러한 통개념으로서의 성경통독을 제시하였다.

조병호는 성경통독의 방법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 부분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야로 읽어야 하고, 시간의 흐름, 역사의 순서대로 읽어야 하고, 성경에 내포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수렴하여 성경을 읽는 것이 통신학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통신학과 성경통독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성경을 읽는 여러가지 관점을 전제하고 유기적으로 그 관점들을 조화시킬 때, 통신학으로서 성경통독을 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¹⁰⁰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16), 67.

그리고 성경을 읽는 여러가지 관점들은 또한 실제로 성경통독을 하면서 얻어질 수 있음을 말한다.¹⁰¹

그래서 통성경읽기는 지평들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강압적인 통합이나 통일이 아니라 영역으로서의 지평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해를 통해서 타자로서의 지평안으로 들어가고 또한 그렇게 지평융합을 이루고 통섭을 이루어나가는 성경읽기이며 세상에 대한 관점이며 “살아냄” 이라고 볼 수 있다. 성경읽기는 단순히 독서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지평과 나의 현실이라는 지평이 융합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의 인생과 사회 간에 통섭하는 관점과 인식을 갖추는 것이다.

성도들은 성경 전체의 흐름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 이야기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평, 하나님의 마음으로 옮겨야 한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고 쓰고 소리내어 읽는 훈련이 오늘날의 시대에 필요하다. 또한 오늘날의 상황과 현실,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현실에 맞는 주제를 선택하여 성경텍스트를 보조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텍스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선포되는 메시지를 읽을 때에도 우리 관점과 시각에서 우리에게 맞는 것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뜻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훈련을 위해서 성경 전체의 거대담론과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고

¹⁰¹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16), 75.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상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컨텍스트 속으로 성육신한 텍스트로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대해서, 타자에 대해서 소멸하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컨텍스트에 성육신하여 텍스트로서의 권위 주장하지 않고 완전히 컨텍스트와 하나가 됨으로 텍스트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 자체를 변화시키고 품어 컨텍스트를 텍스트 안으로 포용하며 텍스트의 내러티브 속으로 인도하고 방향을 잡는 것이 복음과 구원, 선교의 방향성으로 볼 수 있다.

선이 없는 하나님 나라

정체성으로서의 영역, 지평을 상실하지 않고 조화와 균형 속에 포용하는 관계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의 내재적,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한 지평융합, 통섭, 통신학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조화되고 융합되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경계선을 초월하는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재적 관계성에 대해서 페리코레스시스적으로 인식할 것을 말하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재적 관계성이 페리코레스시스적이며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지역을 초월하는 관계성으로 파악할 것을 말하고 있다.¹⁰²

¹⁰² 미로슬라브 볼프, 『삼위일체와 교회』 황은영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338.

제임스 로더는 삼위일체의 관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을 부르고 초대하며 관계를 맺는 관계성의 본질임을 말하고 있다. 제임스 로더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예수님의 본성 안에 나타난 신성과 인성의 관계성을 가리키기 위해, ‘상호 역동적 내주’ (perichoresis)란 개념이 사용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Perichoresis’란 용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접두사, ‘peri’는 ‘모든 점에서’ (at all points)란 뜻을 가지고 있다. 어근이 되는 ‘chora’는 ‘공간’, ‘방’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choreo’는 ‘진행하다’ (to proceed)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접두사와 동사를 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니게 된다. 곧 ‘perichoresis’는 “모든 점에서 상호침투” (mutual interpenetration at all points)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성과 인성의 상호 내주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즉, 훌륭하게 안무가 이루어진 춤과 유비되는 상호 역동적 움직임으로서의 “상호내주” (coinherence)로 표현할 수 있다.¹⁰³

하나님의 존재성인 삼위일체가 경계선으로 규정하거나 고착시킬 수 없는 역동적인 내주와 상호침투의 관계성이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 나아가서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성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성이자 관계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위일체는 말 그대로 삼위이면서 일체이다. 경계선이 없다. 구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이 없는 것이다. 역동적인 영역의 관계와 그 관계를 초월하는 이해와 포용, 상호간의 순종이 있을 뿐이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볼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의 본질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본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존재성 안의 완전한 사랑은 각

¹⁰³ 제임스 로더, 『성령의 관계적 논리와 기독교교육 인식론』 이규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308-309.

위격들이 역동적인 순환 속에서 서로를 내어주며 서로 침투하는, 역동적으로 순환하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완전한 사랑은 곧 완전한 교제의 관계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성으로서의 완전한 관계, 완전한 사랑의 순환은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한 모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 세상을 연결해 주는 역할이 또한 성령의 역할이라고 본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다. 볼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구원자로서 자신의 몸과 정체성을 내어주는데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¹⁰⁴

하나님의 존재는 삼위일체적인 관계로 존재하며 그 관계의 핵심은 페리코레스시스적인 관계, 즉 상호 역동적 내주를 통한 상호 역동적 침투의 관계로 조화롭게 하나되는 관계이다. 이 일치는 단순한 합일이 아니고 또한 분명한 경계선으로 구별되는 관계가 아니다. 지평융합적 관계, 통섭적 관계로도 볼 수 있고 통신학적 관계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의 본질은 사랑이며 또한 사랑이 경계선을 넘어서고 경계선을 포용하여 경계선으로 말미암아 분열하고 갈등하지 않게 하는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사람과 세상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다. 이 사랑은 또한 역동적으로 관계 맺으며 하나님과 세상과 순환하며 내주해야만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다른 사람과 세상, 타자들에 대하여, 원수까지도 이웃으로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¹⁰⁴ 미로슬라브 볼프, 『삼위일체와 교회』, 482-483.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것을 요구한다. 이 사랑에는 선이 없다. 신적인 존재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존재를 하나되게 하고, 원수를 이웃되게 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기본 원리이며 법이다. 선이 없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법이 바로 사랑인 것이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오늘날 다양한 지평과 경계선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본질적인 원인은 정체성과 관계성에 내재된 경계선의 문제라고 본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 주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의 정체성을 재조정하려는 의지는, 그들의 인간성을 인식하려는 목적을 제외한 그들에 대한 그 어떤 판단보다 중요하다. 포용하려는 의지는 다른 사람들에 관한 그 어떤 ‘진리’ 보다, 그들의 ‘정의’에 대한 그 어떤 판단보다 우선한다. 이 의지는 절대적으로 무차별적이며,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적 세계를 ‘선’과 ‘악’이라는 도덕적 범주로 구별하려는 시도를 초월한다.¹⁰⁵

갈등과 분열의 경계선은 결국 자신의 정체성의 경계선을 고집하고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과 그렇게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어버려서 타자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배타적인 경계선을 지키려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볼프는 영역으로서의 정체성, 지평들이 상호간에 침투하고 내주하며 융합하고 통섭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완전한 관계성으로서의 일치와 포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는 나라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¹⁰⁵ 미로슬라브 볼프, 『배제와 포용』 박세혁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2), 44.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될 것을 요구하였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사랑하는 관계성의 모델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내야 할 관계성의 모델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조병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선포된 제사장 나라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 나라의 지평 안에서 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가르치며 준비하였다고 본다.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섭하고 융합하며 “통”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¹⁰⁶

조병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증거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양,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배타적인 경계선의 문제가 해결되고 경계선을 뛰어넘어 용서와 화해를 이룬 나라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닌 한 영혼 그 자체를, 단 하나의 지평일지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창조자와 피조물, 주인과 종, 왕과 백성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경계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침투하고, 성전의 휘장을 찢어 그 어떤 경계선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보여주는 나라임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 안으로 내주하고 침투하고 세상의 지평 속에서 융합되었던 예수를 통해서, 교회와 제자로 인도하여 들임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여 들이는 나라라는 것이다.¹⁰⁷

툼 라이트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같은 의미이며 하나님의 통치, 천국에 사는 분의 통치, 천국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본다. 예수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의

¹⁰⁶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215.

¹⁰⁷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220-221.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현실 세계로서의 땅에 침투했고, 동시에 여전히 침투가 진행중에 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회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지속적으로 이 땅에 침투하기를 기도할 것을 요구하였다.¹⁰⁸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분리된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를 내어주는 죽음과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보여준 치유와 교훈과 잔치들은 모두 다 예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치유와 잔치, 살아 있는 가르침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예수가 공생애 동안 증거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죽음은 서로 간에 타자가 아니다. 예수가 경계한 악의 문제는 치유, 잔치, 살아서의 가르침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악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예수와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비극적인 결말을 가진 자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또한 장황하게 설명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다. 이 이야기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야기이며 하늘의 지평이 땅의 지평안으로 들어오고 동시에 두 지평이 융합되고 땅의 지평과 하늘의 지평이 통섭되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시작되는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이다.¹⁰⁹ 톰 라이트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천국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그 결과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구원이 일어나야 한다. 그 구원은 인간을 위한 구원이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인간을 통한 더 큰 세상의 구원이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¹⁰⁸ 톰 라이트,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양혜원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0), 310.

¹⁰⁹ 톰 라이트,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314-315.

받은 사명의 굳건한 기초다.¹¹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지평융합을 이루고, 통섭하고, 사랑으로 페리코레스스를 “통” 하여 경계선을 뛰어넘고 경계선을 관계와 사귄과 교체와 조화로 변화시키는 나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경계” 선이 없는 하나의 나라이다.

레슬리 뉴비긴은 성경은 만물의 시작에서 끝까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말한다. 그리고 만물의 창조와 창조주로부터 소외되도록 타락시키는 경계선의 이야기이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과 타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이야기이며 약속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다.¹¹¹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시작과 끝이 역동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침투하고 내주하고 있다. 또한 죄악과 소외가 구원과 연결되어 하나가 되고 종말이 영원한 미래와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다.

선교, 교회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선교이며, 이 하나님의 선교는 세상을 향하고 컨텍스트를 향하지만 동시에 먼저 선교에 참여하는 나를 향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이다.

¹¹⁰ 톰 라이트,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315.

¹¹¹ 레슬리 뉴비긴, 『변화하는 세상, 변함없는 복음』 홍병룡 역 (서울: 아바서원, 2016), 200.

제 IV 장

뉴욕초대교회 성경읽기의 적용

뉴욕초대교회 “통” 성경읽기

뉴욕초대교회는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 소속의 교회이다. 1대 목사인 김승희 목사가 1979년 4월 2명의 여자 교우들과 함께 성경공부 모임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1981년 10월 4일 12명의 교우와 함께 청소년 복음교회라는 이름으로 뉴욕 우드사이드 지역에서 개척한 교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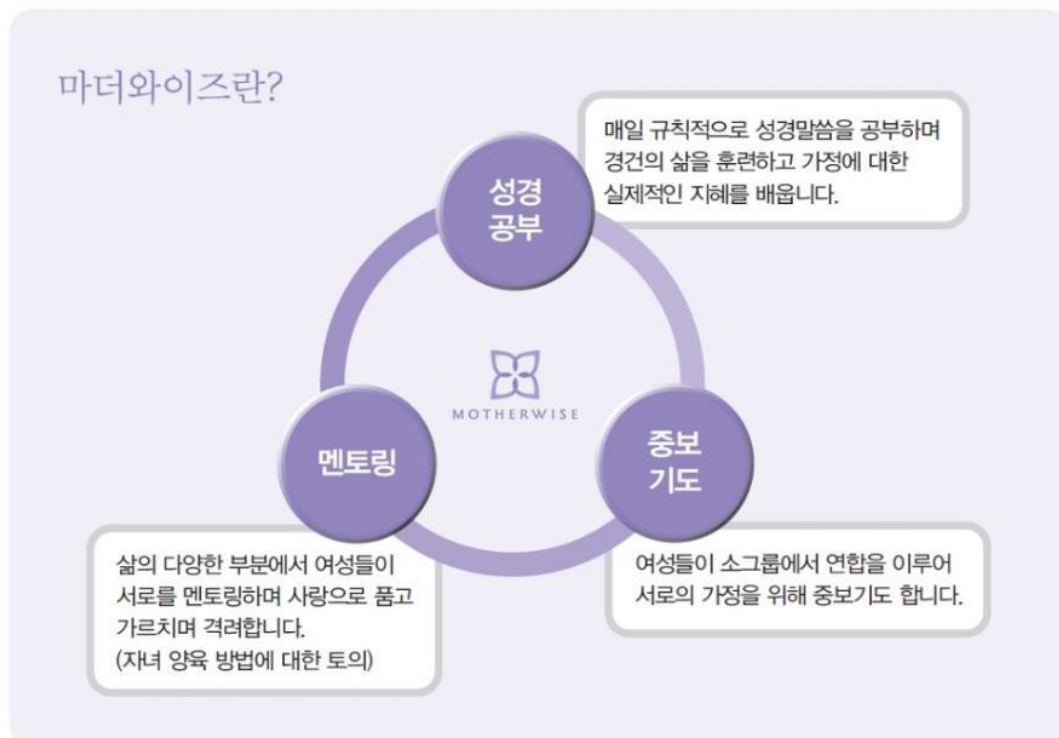
개척한 이후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출석교인만 600-700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교회 내부적인 갈등과 또한 외부적인 원인들로 인하여 부침을 거듭하다가 코로나가 터진 시기 2020년 12월 교회 건물을 매각하기로 공동의회를 통과하기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뉴욕초대교회가 소속된 동부한미노회에서 건물 매각이 허락되지 않아 건물 매각은 1년간 유보하기로 한다. 2020년 1월 동사목사로 부임한 김승현 목사가 2021년 5월 16일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된다. 김승현 목사는 부임 이후 성도들의 심방을 통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경계선, 분열과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연약하게 하는 경계선의 흔적들을 발견하게 된다.

세대 간의 불신과 분열, 교회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의 경계선과 갈등이 뿌리 깊이 남아 있고 지난 과거의 상처와 아픔, 분열과 갈등의 경계선이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2022년 9월부터 마더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다.

마더와이즈는 지혜와 자유, 회복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각 8주, 8주, 6주 씩 22주간 진행하는 여성중심 성경공부이다. 각자 교재를 가지고 스스로 매일 성경공부를 5일씩 한 후 일주일에 한번 소그룹 모임을 통해 성경공부 내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멘토링을 하는 평신도 성경공부이다.¹¹²

<그림 5> 마더와이즈란? (자료출처: 마더와이즈 네이버 블로그)



¹¹²<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otherwisekorea&logNo=221521714295&categoryNo=1&parentCategoryNo=1&from=thumbnailList>

평신도 리더를 세워 진행한 마더와이즈는 소그룹으로 진행되면서 나름대로 참여하는 여성성도들이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더욱 성숙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 중심, 평신도 리더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교회 내에서 일부 성도들 가운데 과별형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고 교회전체 또는 남성들까지 아우르지 못하는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조병호의 통성경읽기와 통성경길라잡이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비교대조군으로 30-40대 남선교회인 뉴욕초대교회 디모데 남선교회 회원 5명을 대상으로 신상훈의 귀납적으로 접근하는 인물별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림 6> 인물별 성경 공부 목차(자료출처: 신상훈, 귀납적으로 접근하는 인물별 성경 공부)

추천의 글 12			
머리말 3			
교제 활용법 6			
귀납적으로 접근하는 인물별 성경 공부 10			
제 1 과	아담과 하와	13	
제 2 과	가인과 아벨	22	
제 3 과	노아	31	
제 4 과	아브라함	39	
제 5 과	이삭	48	
제 6 과	야곱	57	
제 7 과	유다	66	
제 8 과	요셉	75	
제 9 과	모세	84	
제10과	이론	93	
제11과	여호수아와 갈렙	101	
제12과	리합	110	
제13과	룻과 나오미	119	
제14과	드보라	129	
제15과	기드온	139	
제16과	삼손	149	
제17과	한나	158	
제18과	사두엘	168	
제19과	다윗	177	
제20과	솔로몬	188	
제21과	엘리아	197	
제22과	사르밧의 과부	206	
제23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215	
제24과	에스더	225	
제25과	욥	235	
제26과	에리미야	243	
제27과	아모스	250	
제28과	요나	259	
제29과	세레 요한	268	
제30과	마태	276	
제31과	마가	285	
제32과	누가	293	
제33과	요한	301	
제34과	베드로	309	
제35과	도마	318	
제36과	우물가의 여인	326	
제37과	마리아와 마르다	334	
제38과	혈루병 여인	342	
제39과	나인 성 과부와 생필비 전부를 헌금한 과부	350	
제40과	바울	359	
제41과	스데반	369	
제42과	바나바	377	
제43과	디모데	385	

신상훈은 성경을 사건과 인물로 나누어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사건을 통해 인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맥락으로 성경을 대하고 있다. 그리고 사건 또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어떠한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 인물별 성경공부의 핵심이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¹¹³

인물별 성경 공부는 회원들에게 성경의 인물과 오늘 우리의 삶을 연결해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 성경의 인물들과 우리가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살지만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심성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효과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각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상황과 배경을 이해해야 했다. 동시에 그 인물 이전의 역사와 그 인물이 후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성경 전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인물별 성경공부는 성경읽기와 연결되기가 어려웠고 각 인물별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검색을 해서 답을 찾아도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결국 지속적인 연결성과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었다.

조병호의 통성경길라잡이를 시작할 당시 28명의 신청자를 받아 시작하였다. 연령제한이나 교인등록여부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제한을 두지 않고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자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¹¹³ 신상훈, 『귀납적으로 접근하는 인물별 성경 공부』 (서울: 콤파스출판사, 2012), 5.

<표 1> 뉴욕초대교회 통성경길라잡이 1기 연령분포

연령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미상	계
인원	1	7	15	1	1	1	2	28

연령별 분포가 40대에서 90대까지 중에 60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에게 통성경길라잡이 교재를 활용하여 통으로 성경을 읽도록 강조하였다. 기존에도 뉴욕초대교회에서는 성경읽기를 권면하고 있었는데 기존의 성경읽기표는 권별로 나뉘어진 성경읽기 표였고 해마다 5명 내외 정도만이 참여하였다. 통성경길라잡이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역사순 통성경읽기표를 제공하였다.

<그림 7> 일년일독 성경통독표 (자료출처: 성경통독원)

역사순으로 읽는 365일 말씀대행진
성경을 읽으신 횟수만큼 꼭인양에 표시해 드립니다.

1월	통독성경	365일	확인	2월	통독성경	365일	확인	3월	통독성경	365일	확인	4월	통독성경	365일	확인
1	창1-2장	1		1	출39-40장	32		1	신5-6장	60		1	삼상11-12장	91	
2	창3-5장	2		2	레1-5장	33		2	신7-9장	61		2	삼상13-14장	92	
3	창6-9장	3		3	레6-7장	34		3	신10-11장	62		3	삼상15-16장	93	
4	창10-11장	4		4	레8-10장	35		4	신12-14장	63		4	삼상17-18장	94	
5	창12-14장	5		5	레11-13장	36		5	신15-17장	64		5	삼상19-20장	95	
6	창15-17장	6		6	레14-15장	37		6	신18-21장	65		6	삼상21-22장	96	
7	창18-21장	7		7	레16-17장	38		7	신22-26장	66		7	삼상23-24장	97	
8	창22-24장	8		8	레18-20장	39		8	신27-28장	67		8	삼상25-26장	98	
9	창25-27장	9		9	레21-22장	40		9	신29-32장	68		9	삼상27-28장	99	
10	창28-32장	10		10	레23-25장	41		10	신33-35장	69		10	삼상29-31장	100	
11	창33-35장	11		11	레26-27장	42		11	신36-40장(40번)	70		11	삼하1-2장	101	
12	창36-39장	12		12	민1-2장	43		12	수1-2장	71		12	삼하3장-5장	102	
13	창40-42장	13		13	민3-4장	44		13	수3-5장	72		13	삼하6-9장	103	
14	창43-45장	14		14	민5-6장	45		14	수6-8장	73		14	삼하10-11장	104	
15	창46-49장	15		15	민7-9장	46		15	수9-12장	74		15	삼하12-13장	105	
16	창49-50장	16		16	민10-11-12장	47		16	수13-17장	75		16	삼하14-15장	106	
17	창49-50장	17		17	민10-11-12장	48		17	수18-19장	76		17	삼하16-17장	107	
18	출1-2장	18		18	민13-14장	49		18	수20-22장	77		18	삼하18-20장	108	
19	출3-4장	19		19	민15-17장	50		19	수23-24장	78		19	삼하21-22장	109	
20	출5-7장	20		20	민18-19장	51		20	삿1장-210	79		20	삼하23-24장	110	
21	출8-10장	21		21	민20-21장	52		21	삿211-5장	80		21	삼하25-26장	111	
22	출11-13장	22		22	민22-25장	53		22	삿6-7장	81		22	왕상1-2장	112	
23	출14-15장	23		23	민26-27장	54		23	삿8-9장	82		23	왕상3-4장	113	
24	출16-18장	24		24	민28-30장	55		24	삿10-12장	83		24	왕상5-7장	114	
25	출19-20장	25		25	민31-32장	56		25	삿13-16장	84		25	왕상8장	115	
26	출21-23장	26		26	민33-36장	57		26	삿17-18장	85		26	왕상9-10장	116	
27	출24-27장	27		27	민37-40장	58		27	삿19-21장	86		27	왕1-5장	117	
28	출28-29장	28		28	민3-4장	59		28	삿1-4장	87		28	왕6-9장	118	
29	출30-31장	29		29	왕1-3장	88		29	왕11-13장	88		29	왕10-15장	119	
30	출32-34장	30		30	왕4-7장	89		30	왕16-20장	89		30	왕16-20장	120	
31	출35-38장	31		31	왕8-10장	90		31	왕8-10장	90					

TONG BIBLE 통통성경

역사순으로 읽는 365일 말씀대행진

일년일독 성경통독표

본 성경통독표는 (역사순)의 통독성경의 배열 순서를 따른 것입니다.



- 성경은 읽는 책이다.**
성경은 무한한 사랑과 진리를 담은 책의 무예지고는 무척 많다.
: 200여 권
- 성경은 소리내서 읽을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 文字와 音聲
- 성경은 1년 10번 읽을 책이다.**
성경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 反覆(成語)
- 성경은 역사순으로 읽을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쓴 내용이 표현된 책이다.
: 經典(聖書)·문학작품과 心聲
- 성경은 개인·가족·나의 이야기로 통독으로 읽을 책이다.**
성경은 2,000여 년 시공 1,500여 곳인 5,000여 인종 이야기가 통독으로, 크고 작은 개인을 태어내고, 그리고 키우고, 키르키르하고, 울려서하고, 기도해주시는 내용부터 가뭄, 그리고 제사장 나라, 6대 계국, 하나님 나라 이야기까지 통독으로 담겨있다.

▶ (권장) 일년일독 통독성경
성경은 2,000여 년 시공 1,500여 곳인 5,000여 인종 이야기가 통독으로, 크고 작은 개인을 태어내고, 그리고 키우고, 키르키르하고, 울려서하고, 기도해주시는 내용부터 가뭄, 그리고 제사장 나라, 6대 계국, 하나님 나라 이야기까지 통독으로 담겨있다.

▶ (권장) 개인·가족·나의 이야기로 통독으로 읽을 책이다.

성경통독원 (한인) 100년 성경통독기 무료발행
통독성경통독원
역사순(역사순) 통독성경 나눠서 MP3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통독원 www.tongbible.net

안내하였다.

통성경길라잡이를 진행하면서 비록 조건 없이 신청을 받았고 수시로 중간에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지만 전체 52주 분량의 내용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중간에 결석을 할 경우 통성경길라잡이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계속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교재를 참고해서 통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권면하였으나 참여도가 확연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성도들의 경우 원거리에서도 꾸준히 참여하였고 개근자는 처음 신청자 28명 중 4명이 나왔다. 50%이상 출석한 회원은 17명이 나왔다.

통성경길라잡이에 신청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은 성도들은 비록 조건이나 자격제한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교재를 통해 진도를 나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처음부터 신청하지 않은 이들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통성경길라잡이를 참여한 이들은 출석률에 관계 없이 대부분 만족감을 경험하였다. 통성경 길라잡이를 진행하면서 총 2회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통성경길라잡이 특성상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성경공부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성경퀴즈를 원하는 성도들의 건의로 첫번째 설문조사는 성경퀴즈와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첫번째 설문조사는 2023년 6월 21일 수요일에 진행하였고 총 16명이 참여하였다.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다음의 표와 같다. 중복되는 답변은 표에 기입하지 않았다.

<표 2> 뉴욕초대교회 통성경길라잡이 2023년 1학기 기말정리

<p>수요성경공부 “통성경길라잡이” 를 통해 도움이 되는 부분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왜 성경공부를 해야하는지 이해했다. 2. 역사순, 시간순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3. 성경전체의 흐름을 통해 역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명확히 알게 되었다. 4.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을 어렵듯이 알게 되었고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읽게 되었다. 5.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습관적으로 읽어왔지만 “통성경 길라잡이” 를 통해서 천천히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며 읽게 되었다. 6. 성경을 통으로 읽으니 이해가 쉬웠고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7.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겼다. 8.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다. 9. 성경을 소리내어 읽게 되었고 성경이 더 잘 이해가 되었다. 10. 성경을 역사적 체계적으로 읽는 방법을 배웠다. 11.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12. 생명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13. 성경을 꾸준히 읽게 되었다.

14. 매일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고 성경을 읽는 시간이 길어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 마음이 맑아지며 성경을 더 이해하고 성경의 맥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었다.

15. 믿음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였다.

16. 성경말씀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을 알게 되었다.

역사순 성경읽기를 하면서 가장 은혜받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성경의 인물이나 사건 속에서 은혜받은 부분을 적어주십시오)

1. 욥의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에 은혜를 받았다.
2. 창세부터 범죄하는 인간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은혜가 되었다. 다윗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었다.
3. 아브라함의 순종에 은혜를 받았다.
4.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도 실수를 하고 살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5. 모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궁금했던 여러가지가 해결되었다. 성경 속의 인물들 하나 하나를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다.
6.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의 믿음에 감동받았다.
7. 다윗, 사무엘, 한나,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된 부분이 신비하게 느껴졌다.
8. 보아스와 롯은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았음을 느꼈다. 책임을 다한 신앙인들의 만남이 아름다웠다.
9. 고난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바로 설 수

<p>있음에 은혜를 받았다.</p> <p>10. 전체적인 성경의 연결고리를 알게 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p> <p>성경의 흘러가는 맥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요셉의 일생을 통해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었다.</p> <p>11.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p>
<p>기타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적어주십시오.</p>
<p>1. 성지순례로 이어지면 좋겠다.</p> <p>2. 5과 정도 진도가 나간 후에 시험을 보면 좋겠다.</p> <p>3. 통성경길라잡이 하는 수요일이 기다려진다.</p>

첫번째 설문조사의 답변들을 요약하자면 우선 성경경부를 해야하는 이유를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성경을 통으로, 역사순으로, 전체적으로 공부하며 성경의 숲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이다. 그리고 통성경길라잡이를 통해서 매일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습관적으로 흘러 지나가던 성경읽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평가이다. 기존에 성경에 대해 잘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들이 비로소 이해가 되고 오해가 해결되었다는 응답도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더 이해하고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믿음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였다는 것이다.

두번째 설문조사는 2024년 2월 14일에 실시되었고 총 15명이 참여하였다. 설문조사의 질문과 답변은 다음의 표와 같다. 1번, 4번, 10번 항목의 중복되는 답은 기입하지 않았다.

<표 3> 뉴욕초대교회 통성경길라잡이 설문조사

1.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1) 모태에서부터 2) 55년 3) 2002년부터(22년) 4) 약 23년 5) 40년 이상 6) 모태신앙(65년) 7) 50년 8) 1960년부터(64년) 9) 1965년부터(약 59년) 10) 2009년부터(약 15년) 11) 45년		
2. 신앙생활한 이후 성경읽기를 꾸준히 하셨나요?		
① 꾸준히 함 (6/15)	② 불규칙적으로 노력 (9/15)	③ 거의 못함 (0/15)
3. 이전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한 경험이 몇 번 정도 있으셨나요?		
① 2회 이상 (12/15)	② 1번 (3/15)	③ 없음 (0/15)
4. 한국에서 이민을 위해 떠나신 지 몇 년 되셨나요?		
1) 50년 이상 2) 31년 3) 26년		

4) 34년		
5) 38년		
6) 32년		
7) 45년		
8) 64년		
9) 23년		
10) 22년		
11) 35년		
12) 4년		
5. 통성경길라잡이 성경공부 후 성경을 꾸준히 읽고 있으신가요?		
① 1회 통독 완료 (8/15)	② 읽고 있음 (1회 미만) (5/15)	③ 읽으려고 노력 (2/15)
6. 통성경길라잡이가 성경읽기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① 도움이 됨 (13/15)	② 모르겠다 (2/15)	③ 도움이 안됨 (0/15)
7. 성경읽기가 이민생활과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나요?		
① 도움이 됨 (11/15)	② 모르겠다 (4/15)	③ 도움이 안됨 (0/15)
8. 통으로 성경읽기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는 부분이 있었나요?		
① 있었다 (15/15)	② 모르겠다 (0/15)	③ 없었다 (0/15)
9. 이민생활하면서 교회와 신앙생활이 도움이 되었나요?		
① 도움이 됨 (15/15)	② 모르겠다 (0/15)	③ 도움이 안됨

		(0/15)
<p>10. 통으로 성경읽기를 통해서 바뀌게 된 고정관념이나 또는 성경이나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부분 또는 성경과 신앙생활에 대해 오해했던 부분, 구체적으로 생활이나 생각에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써주세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다. 2) 성경의 역사적인 것을 많이 알게 되었고 도움이 되었다. 3) 모르고 있던 성경의 줄거리를 알게 되어 무척 유익하였다. 매일 성경 읽는 습관이 생겼고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4) 성경을 읽으며 모순된다고 느꼈던 부분이 해결되어 이해하게 되었고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개인과 가족의 삶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게 되었다. 대학생 때부터 많은 성경공부를 해왔지만 통성경 길라잡이를 통해서 그동안 알 수 없었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5) 시간순으로 성경을 공부하여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일방적인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요점을 깨닫게 되었다. 6) 성경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읽는 방법을 배웠다. 7)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하게 되었다. 8) 믿음이 더욱 성숙해졌다. 		

두번째 설문조사를 요약하자면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초신자보다는 최소 15년에서 65년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민을 떠난 기간은 최소 4년에서 64년이다. 그래서 대체로 이민을 떠나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이민생활 내내 신앙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앙생활 시작한 이후 성경읽기를 노력한 비율과 통성경길라잡이를 통해 통으로 성경읽기를 시작한 비율을 비교해보면 통으로 성경읽기를 시작한 이후 성경읽기를 적극적으로 읽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읽으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읽기가 분명하게 이민 생활과 대인관계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모르겠다는 답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민 생활 속에 교회와 신앙생활이 100% 도움이 된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통으로 성경읽기를 통해 100% 성경에 대해 새롭게 깨닫는 부분이 있었고 자신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고 성경의 역사적인 부분을 새롭게 깨닫거나 오해하고 있던 부분을 이해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차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성경읽는 습관이 새롭게 생겨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성경공부나 권별 성경읽기와 다르게 새롭게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고 깨닫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믿음의 회복,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깨닫고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어 현실적인 삶이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는 단추를 제공해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뉴욕초대교회에서는 마더와이즈, 귀납적으로 접근하는 인물별 성경공부,

통성경길라잡이를 통해 성경공부를 진행하며 역사순으로 성경읽기를 병행하였다. 목표는 성경읽기를 통해 신앙생활과 이민생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마더와이즈는 여성중심, 소그룹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고, 참가자들의 참여도가 가장 높았던 프로그램이지만 여성중심성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리고 성경공부나 성경읽기보다는 기도와 나눔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경계선을 느끼고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부작용이 있었고, 자녀가 없는 가정 혹은 싱글 가정의 경우 명칭에서부터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날마다 해야 하는 과제들과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시간이 생각보다 참가자들에게 큰 부담과 스트레스로 다가왔다고 한다. 특히 정년나이가 없이 계속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 뉴욕초대교회 여성 성도들의 경우 분명 프로그램을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면서도 2단계, 3단계의 프로그램으로의 연결은 되지 않았다.

인물별 성경공부의 경우 평균 3-4명의 출석으로 진행되었고 성경의 인물의 경험과 자신들의 경험을 비교하며 나누는 데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다는 참가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인물별로 진도가 끊어져 있다보니 연결해서 이어가야 할 의지와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경공부를 해야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보니 성경읽기와 연결되지 못하였다.

통성경길라잡이는 마더와이즈, 인물별 성경공부와 비교해서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전체적인 주제의 연결성, 참가자들의 참여도는 뛰어났으며 성경읽기와 연결시키는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성경읽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생활과 생각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응답이 다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통성경길라잡이의 경우 52주의 호흡으로 진행이 되기에 참가자들이 끝까지 집중력과 참여도가 인물별 성경공부보다는 높지만 마더와이즈보다는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성경공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성경읽기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았을 때 통성경 길라잡이가 가장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 및 비참가자들의 거부감이나 소외감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다만 일부 비참가자들 가운데 자발적 무제한 신청이었음에도 신청자들에 한해서 진도가 진행이 되니 조금 문턱을 낮추어 자유롭게 오고 가는 정규예배의 형식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래서 뉴욕초대교회 당회에서는 1기 통성경길라잡이가 끝나는대로 별도로 신청을 받지 않고 수요일예배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디아스포라로서의 한인이민자들이 신앙생활과 이민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관계의 문제이다. 사람들 간에, 가족 간에, 성도들 간에,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계선을 넘지 못한다. 경계선 안에서 상대방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며 스스로를 가두고 있고 또한 또한 동시에 경계선 내부에서조차 경계선을 계속 생성해내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내재한 경계선의 문제는 사람과 사회에서는 해결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레슬리 뉴비긴은 오늘날의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이며 세속화된 다원주의 사회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세속화된 다원주의 사회는 권위를 가진 특정한 신념이나 행위의 규범이 없는 사회이고 비판정신에 의해 돌아가는 사회라고 본다. 이런 사회에서는 어떤 교리나 신념이나 양보가 성립될 수 없다. 이런 사회에서 양보라는 것은 타자들에 의해 공격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¹⁴

결국 세속화된 다원주의 사회에서 비판정신에 의해서 공격성이 증폭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밖에 없는 현상이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디아스포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경계선을 강화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세대 간에도, 성도 간에도, 사회적인 관계속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다.

통성경 길라잡이와 통으로 성경읽기를 통해 통신학적 관점을 받아들이고 훈련할 경우 이러한 세속적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한인이민교회들의 공격적이고 배타적이며 자기중심적인 경계선을 뛰어넘는 이해와 포용, 질서를 경험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¹¹⁴ 레슬리 뉴비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홍병룡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8), 15.

제 V 장

결론

선을 넘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경계선으로 인한 갈등과 공격성이 증폭된다고 해서 경계선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경계선 자체를 없애는 획일성을 추구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과 갈등을 낳을 뿐이고, 인위적으로 경계선을 없애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계선을 극복하는 것은 경계선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경계선을 지켜야 하는 규범이거나 또는 다름을 구분하고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로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건널 수 없는 강이 아니라 맞잡은 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레너드 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더 많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른 관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는 기술을 빠른 속도로 잃어가고 있다. 그러니 세상의 근본 문제가 사람들의 단절된 삶임은 당연하다. 그들은 하나님과 타인과 피조 세계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사람들은 서로 함께 살아가는 기술을 잃어가고 있다.¹¹⁵

레너드 스윗은 단절성, 분리성이 바로 세상의 문제의 근원임을 말하고 있다.

¹¹⁵ 레너드 스윗, 『관계의 영성』 윤종석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9), 15.

이러한 단절성은 바로 환원주의의 일환이며 환원주의는 배타성과 공격성을 내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단절하고 분리하는 경계선은 어디에나 있다. 이 세상 어디에서나 심지어 자신의 자아 속에서도 이러한 경계선은 발견이 된다. 세속화된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터전을 잃고 우거인으로, 나그네로, 흩어지고 팽박받고 박해받고 고난을 당하는 디아스포라로서 살아가는 한인이민교회의 성도들은 크리올화로 상징되는 혼합주의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이고 폭력이며 남는 것은 낙심과 절망 밖에는 없을 것이다.

예수는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비롯해 각종 질병과 귀신들리고 가난하고 박해받고 떠도는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며 빛과 소금의 기능을 다할 것을 선포한다.

빛과 소금은 경계선을 뛰어넘는 존재들이다. 경계선을 뛰어넘고 극복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다. 빛과 소금의 정체성은 고정된 형태의 겉모습이 아니라 불변의 경계선 안의 영역이 아니라 지평융합과 통섭으로서의 이해와 통신학적 관점으로서 경계를 극복하고 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경계선, 정체성이 겉모습, 프레임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위한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 그 때 비로소 경계선을 극복하고,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서로가 서로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마치 한 알의 밀알 비유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다고 그 정체성이 사라지고 소멸하거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로, 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가 바로 성경의 원리이며 통으로 성경을 보고 통으로 성경을 읽으며 성경과의 스킨십을 지속할 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언

각자의 상황과 이야기에 맞는 성경, 요절, 예화, 권별 성경이야기가 아니라 원스토리로서의 성경이야기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경계를 초월한 하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갈등과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한인이민교회들의 성도들은 1세대나 2세대 공통적으로 원스토리로서의 성경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성경을 읽고 읽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도 원스토리로서의 성경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니 성경이야기를 조각조각 내어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맞게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려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신앙의 방향과 믿음의 방향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게 되고 조금만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맞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신앙이 약해지거나 심지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믿음의 본질은 상황과 환경과 처지, 내 생각과 판단,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것인데 오히려 변화의 경계에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의미이거나 가짜 믿음이었다고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원스토리로서의 성경이야기 속으로 내가 참여하고 들어가야 한다. 그때 비로소 상황과 환경, 처지와 경험, 인간적인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참된 믿음이 생겨나고, 그 원스토리로서의 성경 이야기 속에서 나의 역할과 사명이 분명해진다. 그리고 복음 1세대처럼 핍박과 박해 순교 앞에서도 담대하게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선포하며 고백할 수 있고 복음 2세대처럼 핍박과 박해를 경험하였음에도 맡겨진

사명을 잘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미국 뉴욕의 한인이민교회의 성도들은 위축되고 두렵고 고단한 현실을 뛰어넘는 위로와 도움, 심지어 기적을 바라며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다.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현실을 뛰어넘는 은혜와 도움, 기적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은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스토리로서의 성경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 안에 있다.

예배의 형태와 장소가 바뀌고 상황과 환경의 경계를 지나서 엄청난 변화를 마주한다 할지라도 원스토리로서의 성경이야기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한인이민교회와 성도들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은 이 경계와 갈등을 어떻게 피하거나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원스토리로서의 성경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참여할 것인가이다.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스토리,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갈등을 치유하신다. 원스토리로서의 성경이야기 속에서 경계를 넘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원스토리로서의 성경이야기를 통독하고 필사하고 묵상하며 원스토리로서의 성경 이야기 안에 참여하는 훈련과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메타버스나 유튜브 같은 미디어로만 드리는 예배를 지양해야 한다. 예배는 단순히 강의나 공연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로서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실제로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업성취가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한다. 교실에서 대면으로 수업하는 것보다 훨씬 자율성이 보장되고 학생 개인이 편안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그것이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것이 아이들의 학업을 후퇴시킨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라인 예배가 당장 편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예배드린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점차 예배와 멀어지게 된다.

예배를 유튜브나 틱톡과 같은 미디어 콘텐츠로 생각하면 안된다. 또한 비대면 관계와 교제는 반드시 한계가 찾아오고 결국 관계와 교제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드러난 현실이다. 예배, 관계, 교제, 친교는 실질적이고 친밀한 관계로서의 만남이다. 예수가 친히 성육신 하여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가 친히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교제한 것처럼 성도간의 교제에도 스킨쉽이 필요하다. 이러한 스킨쉽은 단순히 내 기호에 맞고 나와 생각과 사상이 비슷한 사람들 간의 스킨쉽이 아니다. 예수는 예수를 배척하는 이들과 또한 예수를 배척하는 세상을 향해 낮아지고, 내려오고, 그들 삶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아픔과 부끄러움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간 것처럼 우리의 교제와 스킨쉽도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기도와 묵상은 사과의 중심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훈련이다. 단순히 내 생각과 요구를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훈련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인간적인 수많은 소음들, 그리고 우리 내면의 이기적인 욕망의 소리에서 멀어지게 되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주입되는 이미지와 사상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 순종하게 된다. 순종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웃을 받아들이고 불편한 관계를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시간을 받아들이고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늘날의 시대는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기호와 욕망에 충실하여 불편한 관계는 피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며 죽음을 피하는 길을 찾으려는 시대이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는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이다. 그리고 관계가 파괴되면 인간은 존재의 동력과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스스로 삶의 의지마저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육신의 죽음 이전에 정신과 마음 영혼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암은 정상세포에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악성종양이 되는 것이다. 이 악성종양은 다른 세포와의 관계와 유기적인 관련성을 부인한 채 무한 증식하는 것이 특징이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세포가 악성종양이다. 주변 세포들을 파괴하고 결국 신체 전체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신체의 생명을 중단하여 자신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멸망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욕망과 인간 삶의 모습은 이러한 암, 악성종양과도 같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성찰해야만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와 동력은 바로 기도와 묵상이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우리의 삶은 스스로 완벽해 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불만족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내 삶의 계층과 수준이 높아질수록 내 주변의 삶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결국 우리 주위에는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변을 포용하고 품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게 되면 내 주변은 상대적으로 만족한 환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자본과 미디어에 의해서 조종당하기 쉬운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성경통독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흐르는 거대담론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를 통해서 메시지를 바라보는 관점의 중심을 내 상황과 환경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사람과 상황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과 사람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기다림과 용서, 죽음까지도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예수가 보여준 거룩한 순종의 모습이다. 예수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거룩한 순종을 완성하였다.

오늘 혼란하고 이기적이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거짓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는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본질은 예수가 몸소 보여준 겸손과 순종,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이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말씀을 끊임없이 익히고 모든 유혹과 시험에 대하여 말씀으로 대처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참된 뜻과 그 흐름을 풀어 설명하고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였다. 그리고 기도와 묵상으로 본을 보였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히 다가가서 스킨쉽을 하고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비대면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성도들 간에 스킨쉽이 있는 교제와 친교가 필요하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였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과 말씀에도 순종하였다.

미디어와 자본 및 수많은 과학기술이 거짓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새로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시대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신앙과 순종의 모습을 따라갈 때 분명히 이 혼란을 넉넉히 감당하며 오히려 이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외국어 서적

Philp Jenkins. The Next Christendom. New York: Oxford, 2011.

Daniel L. Smith-Christopher. A Biblical Theology Of Exi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Daniel L. Smith-Christopher. The Religion of the Landless. Eugene: Wipf & Stock, 1989.

James M. Scott. Exile. Downers Grove: IVP, 2017.

번역서적

레너드 스윗/윤종석 옮김. 『관계의 영성』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9.

미로슬라브 볼프/홍병룡 옮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임홍배 옮김. 『진리와 방법2』. 파주: 문학 동네, 2012.

케빈 케니/최영석 옮김. 『디아스포라 이즈is』. 서울: 도서출판 엘피, 2016.

로빈 코헨. 올리비아 세링엄/최영석 옮김. 『다름과 만나기』. 서울: 도서출판 엘피, 2019.

월터 브루그만/정진원 옮김. 『성경이 말하는 땅』.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팀 마샬/김미선 옮김. 『지리의 힘』. 서울: 사이, 2022.

에버렛 퍼거슨/엄성욱, 박경범 옮김. 『초대 교회 배경사 제3판』. 서울: 은성출판사, 2005.

롤란드 베인턴/이길상 옮김. 『세계교회사』.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0.

- 폴 존슨/김주한 옮김. 『기독교의 역사』. 서울: 포이에마, 2023.
- 폴 존슨/김한성 옮김. 『유대인의 역사』. 서울: 포이에마, 2023.
- 제임스 윌호이트, 에반 하워드/홍병룡 옮김. 『렉시오 디비나』. 고양: 아바서원, 2023.
- 요아킴 예레미아스/정충하 옮김. 『신약신학』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12.
- E. P. 샌더스/이정희 옮김. 『예수운동과 하나님나라』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9.
- 미로슬라브 볼프/황은영 옮김. 『삼위일체와 교회』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 제임스 로더/이규민 옮김. 『성령의 관계적 논리와 기독교교육 인식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미로슬라브 볼프/박세혁 옮김. 『배제와 포용』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2.
- 톰 라이트/양혜원 옮김.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서울: 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10.
- 레슬리 뉴비긴/홍병룡 역. 『변화하는 세상, 변함없는 복음』 서울: 아바서원, 2016.
- 레슬리 뉴비긴/홍병룡 역.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8.

한국어서적

-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16.
-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서울: 통독원, 2020.
- 조병호. 『성경과 5대 제국』. 서울: 통독원, 2020.

- 조병호. 『성경과 고대정치』 서울: 통독원, 2021.
- 조병호. 『신구약 중간사』 서울: 통독원, 2021.
- 조병호. 『성경과 고대전쟁』 서울: 통독원, 2021.
-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20.
- 하용조 엮음. 『간추린 비전 성경사전』. 서울: 두란노, 2004.
-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최인철. 『프레임』. 파주: 21세기북스, 2017.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신학위원회 엮음. 『교회와 사회』. 서울: 성광문화사, 2002.
- 윤철호. 『기독교 인식론과 해석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웹사이트

- VOA 뉴스, “세계 각국,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규탄...이란은 지지”
(2023.10.7.).
<https://www.voakorea.com/a/7300828.html>. [2024. 2. 12. 최종접속]
- 정재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본질적 원인은?” 시사in (2022.03.09.).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942>. [2024. 2. 12.
최종접속]
- 장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종교로 얽히고 설킨 땅...대립과 갈등의 연속”
중앙일보 (2023.10.17.).
<https://news.koreadaily.com/2023/10/16/life/religion/20231016194459022.html>.
[2024. 2. 12. 최종접속]
- 김민정, “[특파원 리포트] 우크라이나 · 이스라엘, 다음은 타이완?... ‘제3전선’
정말 현실 될까” KBS (2023.10.2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97714>. [2024. 2. 12.

최종접속]

이진수, “뉴욕주 ‘증오범죄와의 전쟁’ 선포” 한국일보 (2024-01-26).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126/1499443>. [2024. 2. 12. 최종접속]

정희주, “[에고 바운더리] 나와 타인의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방법” 정신의학신문 (2023. 12. 21.)

<https://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4993>. [2024. 2.

12. 최종접속]

구은숙, “9·11 테러 이후 달라진 미국·미국인·미국 사회” 월간조선 뉴스룸 (2023. 11.)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111100034> [2024.

2. 12. 최종접속]

박현진, “[9·11 그후 10년, 삶이 달라진 사람들]<1> 트라우마” (2013. 4. 17.)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110903/40036127/1> [2024. 2. 12.

최종접속]

마더와이즈 코리아, “마더와이즈란?” (2019. 4. 5.)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otherwisekorea&logNo=22152171429>

[5&categoryNo=1&parentCategoryNo=1&from=thumbnailList](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otherwisekorea&logNo=22152171429&categoryNo=1&parentCategoryNo=1&from=thumbnailList) [2024. 2. 12. 최종접속]

VITA

PERSONAL DATA

Full Name: Seung Hyeon Kim

Place and Date of Birth: Yeongju-si, South Korea, May 2, 1978

Parent's Names: Young Soo Kim and Im Soon Suh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Daeyoung High School 45, Guseong-ro, 150beon-gil, Yeongju-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14, 1997
Collegiat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51, Gwangjang-ro 5-gil, Gwangjin-gu, Seoul, Republic of Korea	Th. B	Feb 12, 2004
Graduat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51, Gwangjang-ro 5-gil, Gwangjin-gu, Seoul, Republic of Korea	M. Div	Feb 8, 2007
Graduat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51, Gwangjang-ro 5-gil, Gwangjin-gu, Seoul, Republic of Korea	Th. M	Aug 8, 2013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Seung Hyeon Kim

Name typed

February 15, 2024

date